

KAN AUCTION

44th AUCTION WITH KOREAN ART

2026. 9. 3^{THU}





KAN AUCTION

44th AUCTION WITH KOREAN ART

경매 AUCTION

2026. 9. 3(목) 오후 4시

전시 PREVIEW

2026. 8. 24(월) — 9. 2(수)

건국빌딩 건국관1층 칸옥션 전시장

 KAN Auction

NOTICES

공지사항

경매약관	칸옥션 미술품 경매는 칸옥션의 약관 및 공지사항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응찰 희망자는 반드시 칸옥션의 약관과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프리뷰 기간 중 본인의 책임 아래 작품의 상태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칸옥션은 응찰자가 직접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도록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합니다.
회원가입	칸옥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칸옥션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신청은 칸옥션 홈페이지와 경매도록에 첨부되어있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찰	응찰 희망자는 칸옥션의 경매약관에 따라 현장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찰 및 전화 응찰 신청은 경매 1일 전 오후 7시까지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응찰 관련 내용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면, 현장 및 전화 응찰자가 동일 금액으로 응찰 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서면 응찰이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될 경우 먼저 응찰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낙찰됩니다.)
수수료	구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응찰시 수수료를 감안하신 후 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결제	낙찰자는 약관 및 공지사항에 따라 낙찰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해주셔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칸옥션과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11-338178 주식회사 칸옥션
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	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 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매작품의 보관 및 운송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경매 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방문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미술품의 특성 상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셔야 하며 운송비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작품 배송 일정에 관해서는 칸옥션과 낙찰자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됩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VAT)의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 시행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GUIDE

안내사항

칸옥션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출품되었습니다. 칸옥션은 작품에 포함된 각종 정보와 부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작품 감상 및 응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매 도록에 제공된 사항들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칸옥션은 그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희망자는 프리뷰 기간 중 작품 상태와 도록에 포함된 정보 등을 본인의 책임 아래 확인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도록에 실린 작품을 설명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정보 이외의 도록에 추가된 설명은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호	작가의 대표적인 아호를 성명 앞에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작가명	작가의 성과 이름을 쓰며 한글과 한자를 함께 표기합니다.
생몰년	작가의 출생과 사망년도를 표기하며 -는 현재 생존, ?는 미상을 나타냅니다.
전傳	관서나 인기가 없으나 작품의 경향(필치, 구도, 채색) 등이 해당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傳을 사용합니다. 위창 오세창, 영운 김용진, 송은 이병직, 소전 손재형 등 감식안을 신뢰할 수 있는 선학의 배관, 제발, 소장인(감장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傳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품명	기존의 작품명 등을 참고하며, 작품명이 없을때는 시의 제목, 작품의 내용, 화제 등을 참고하여 표기합니다.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道圖는 생략합니다.
제작시기	간지로 된 것은 서기(간지)로 표기하며,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세기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월, 일까지 표기합니다.
재질, 재료, 기법	작가가 어떤 바탕(종이, 비단, 모시, 캔버스, 패널 등)에 어떤 재료(먹, 수묵, 채색, 유채 등)를 사용하여 어떤 기법으로 제작했는지 표기합니다.
크기	평면 : 세로x가로 cm 입체 : 도자기 - 고(높이)x구경(입지름)x저경(밑지름)cm 공예품 - 고(높이)x세로(깊이)x가로(폭) 기 타 - 얇고 길거나 굴곡이 많은 작품(조각, 횡대 등)은 최대길이만, 같은 작품이 여러 점일 경우는 대표적인 것만 표기합니다.
형태	작품을 꾸민 방법을 기록합니다.예) 액자, 족자, 병풍, 가리개, 책, 배접 등
본관, 자	작가의 본관을 기록한 후, 표시 뒤에 대표적인 자號를 기록합니다.
추정가	회사가 미술 시장의 거래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가격입니다. 추정가는 응찰의 참고 자료이며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가는 낙찰가와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품해설	관람자와 응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합니다.
출처, 감정서	작품수록 문헌의 서지사항, 감정서, 작품 소장 이력과 출처, 문화재 지정(국보, 보물 등)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 도록에 탈초,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작품에 대해 칸옥션을 통해 탈초,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INDEX

색인

서·화 (작가명 가나다순)

강세황 豹菴 姜世晃	018, 073	박생광 乃古 朴生光	056	이석구 何然 李錫玖	011
강환섭 康煥燮	115	박승무 深香 朴勝武	066	이수목 五堂 李壽穆	011
구본웅 具本雄	059	박종혁 朴鍾赫	011	이영두 五堂 李瑩斗	011
권동수 石雲 權東壽	084	배렴 霽堂 裴濂	061	이왈중 李曰鍾	118
김가진 東農 金嘉鎭	099	백운문 香塘 白潤文	058, 108	이용우 墨鷺 李用雨	047
김경원 灘月 金景源	063	변관식 小亭 卞寬植	033, 041	이유태 玄岬 李惟台	040
김구 白凡 金九	010	서세옥 山丁 徐世鈺	034, 054	이응균 醒石 李應均	063
김기창 雲甫 金基昶	038, 044, 052	서희환 平步 徐喜煥	001	이응노 竹史 李應魯	037
김대중 後廣 金大中	015	성재휴 豊谷 成在休	081	이인식 春阜 李仁植	011
김득신 兢齋 金得臣	090	송영방 牛玄 宋榮邦	035, 116	이정구 月沙 李廷龜	028
김세호 金世鎬	011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029	이정보 三洲 李鼎輔	027
김수환 金壽煥	031	신영복 牛耳 申榮福	013	이준 海史 李儁	012
김옥균 古筠 金玉均	008	신헌 威堂 申櫛	016	이천보 晉庵 李天輔	025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063	심인섭 東洲 沈寅燮	063	이철경 李喆卿	004
김유성 西巖 金有聲	100	안동숙 吾堂 安東淑	113	이하응 石坡 李昞應	087
김은호 以堂 金殷鎬	042, 045, 053, 080, 109	안종원 石丁 安鍾元	063	장우성 月田 張遇聖	036
김응현 如初 金膺顯	003	양기훈 石然 楊基薰	067	장운상 木佛 張雲祥	043
김정희 秋史 金正喜	019, 023	여운형 夢陽 呂運亨	011	정인보 舊園 鄭寅普	017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011, 078	오세창 葦滄 吳世昌	009, 011, 063	정종여 靑谿 鄭鍾汝	079
김충현 一中 金忠顯	002	오원 月谷 吳瑗	025	정학교 夢人 丁學敎	089
김태석 惺齋 金台錫	021	유희강 劍如 柳熙綱	007, 020	조면호 怡堂 趙冕鎬	019
김흥기 又古 金鴻機	011	윤순 白下 尹淳	026	조석진 小琳 趙錫晉	046
남계우 一濠 南啓宇	072	윤용구 石村 尹用求	068, 083	지운영 白蓮 池雲英	070, 103
남관 南寬	030, 111	이기 蘭垞 李琦	063	지창한 白松 池昌翰	107
남유용 雷淵 南有容	025	이도영 貫齋 李道榮	063	최석환 浪谷 崔爽煥	071
민경갑 酉山 閔庚甲	055, 112	이문희 李文熙	031	최영림 崔榮林	117
민형식 又荷 閔衡植	063	이미경 李美卿	005	최우석 鼎齋 崔禹錫	062
박기양 石雲 朴箕陽	064	이방자 佳惠 李方子	006	폴 자쿨레 Paul Jacoulet	114
박대성 小山 朴大成	032, 039, 105	이삼만 蒼巖 李三晩	022	허건 南農 許楫	051, 060, 082
박두진 兮山 朴斗鎭	014	이상범 靑田 李象範	048	허규 一軒 許珪	011
				허련 小癡 許鍊	092, 093, 104

허발 一蒼 許潑	011
허백련 毅齋 許百鍊	049, 050, 057, 065, 095, 110
허형 米山 許滢	091
현우현 玄又玄	011
홍재호 翠岩 洪在嶠	011
홍증식 誠友 洪增植	011
황용하 美山 黃庸河	069
황철 魚門 黃鐵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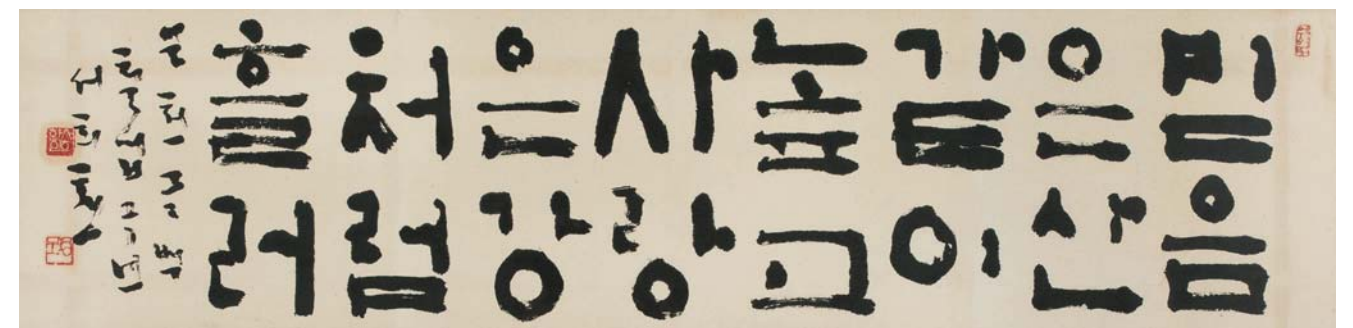
서·화 (작가미상 가나다순)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	101
경직도 耕織圖 6폭	096
傳 공민왕 호렵도 恭愍王 胡獵圖	099
몽양선생수연첩 夢陽先生壽宴帖	011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八幅屏風	088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八幅屏風	
군자화목도 6폭병풍 君子花木圖六幅屏風	094
문자동자도 文字童子圖	097
백선도 百扇圖 2점	086
석고문 石鼓文 탁본첩	020
성학십도 12폭병풍 聖學十圖十二幅屏風	077
어해 魚蟹 2점	098
여도요람 與圖要覽	075
운룡도 雲龍圖	085
책거리 8폭병풍 冊巨里八幅屏風	102
천문성좌도 天文星座圖	
삼환이십팔속도 三垣二十八宿圖·천문지 天文誌	076
팔도지도 八道地圖	074

공예·도자 (작품명 가나다순)

경성남대문조각벼루 京城南大門硯	121
고비 考備	119
등잔대 燈臺臺	120
신선로 神仙爐 5점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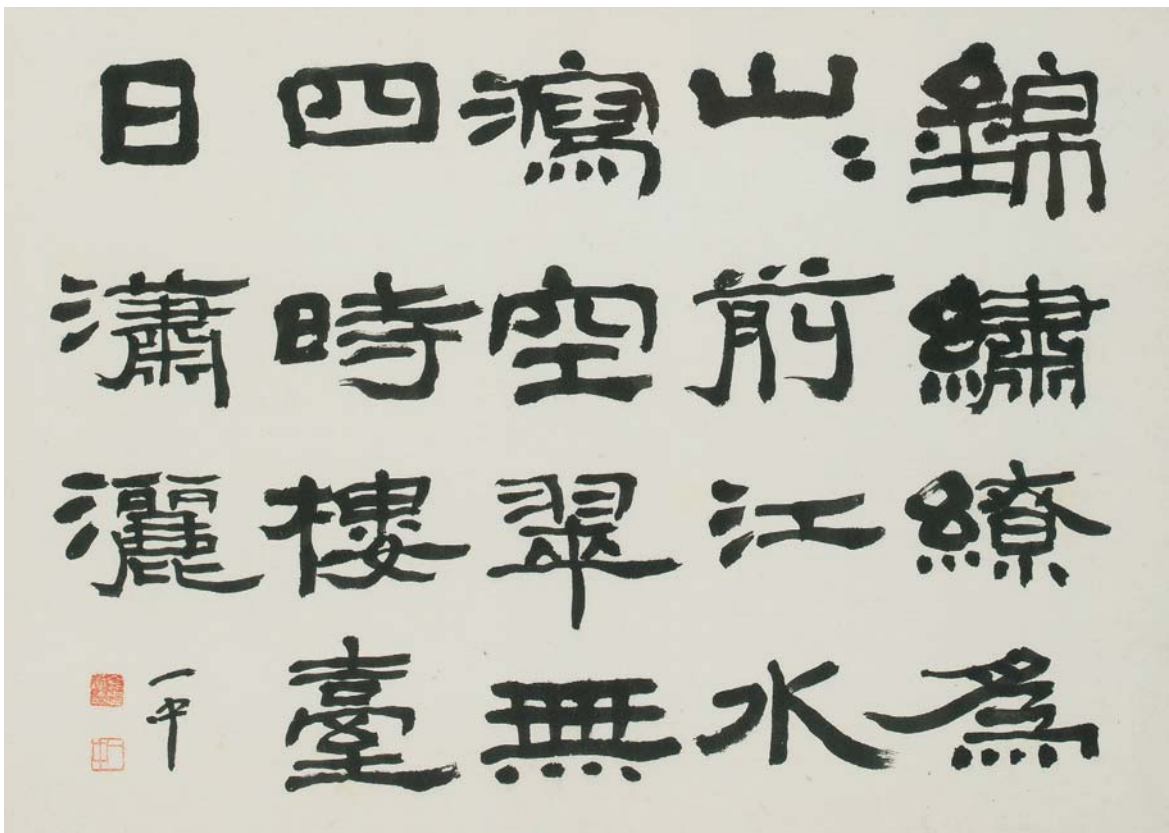


001

평보 서희환 平步 徐喜煥
이천利川/ 1934-1998

믿음은 산 같이
1979년
종이에 먹/ 액자
31.5x130cm

₩ 800,000-2,000,000



002

일중 김충현 一中 金忠顯
안동安東, 서경恕卿/ 192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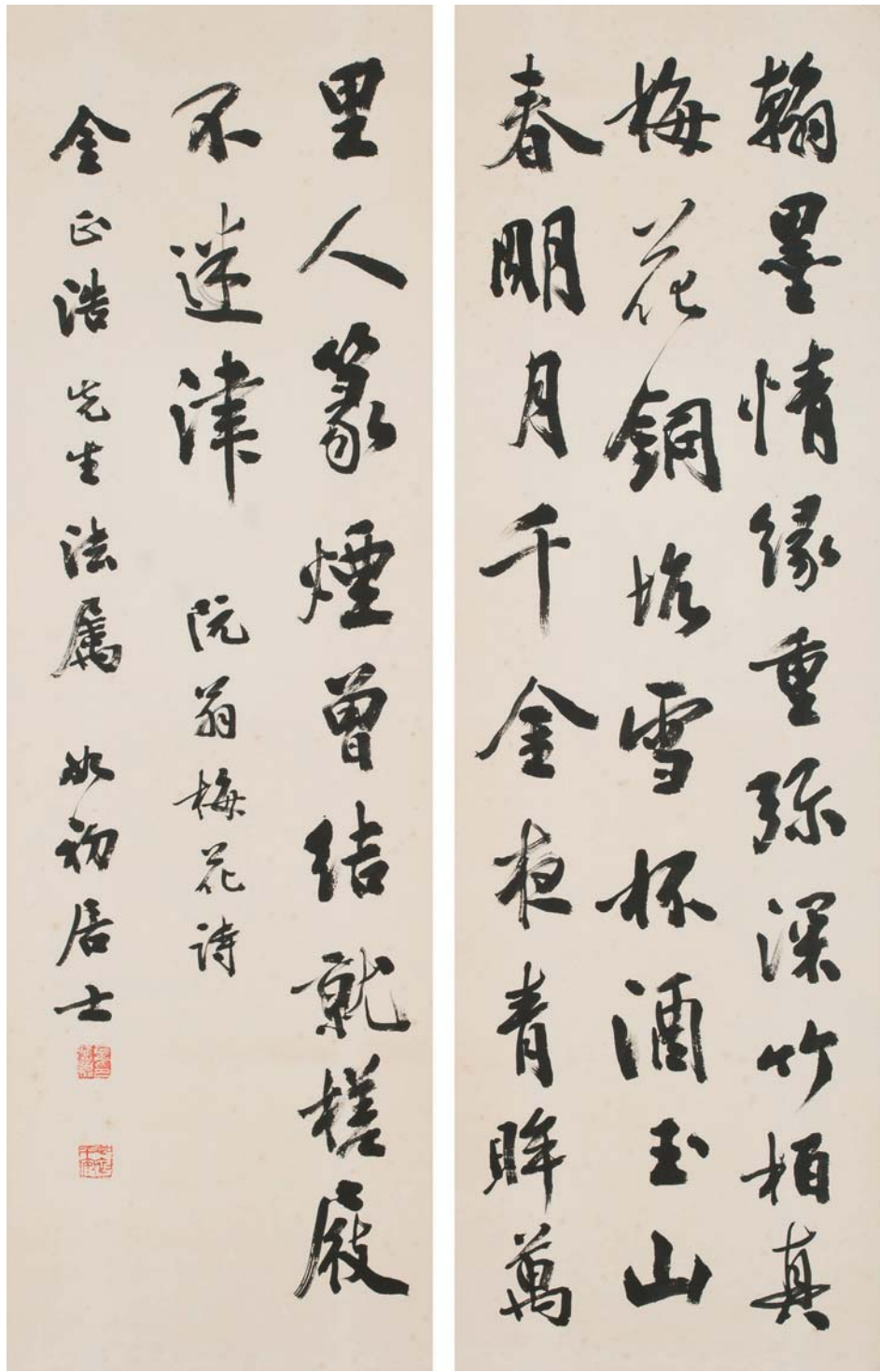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액자
32.3x45.5cm

₩ 500,000-1,200,000

錦繡線爲山 山前江水瀉
空翠無四時 樓臺日瀟灑

비단 수놓은 듯 산이 둘러 있고, 산 앞에는 강물이 흘러내리네.
맑고 푸른 산빛은 사철 변함없고, 누대는 날마다 맑고도 시원하네.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차병간회옹팔절次屏間晦翁八絕」 6수



003

여초 김응현 如初 金膺顯
안동安東, 선경善卿/ 192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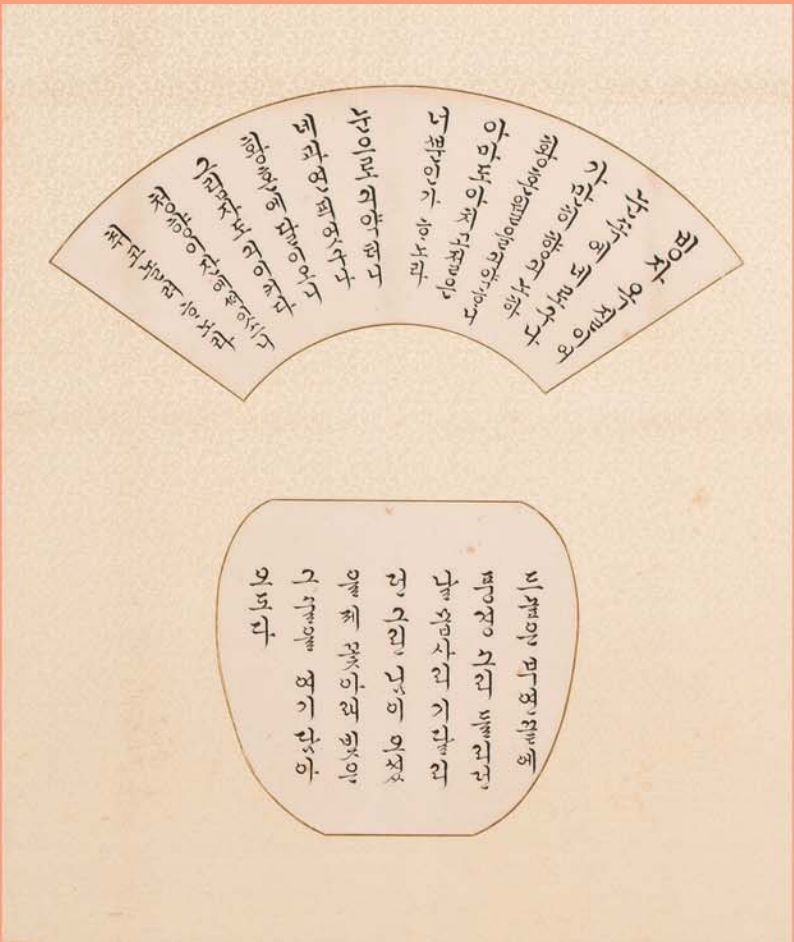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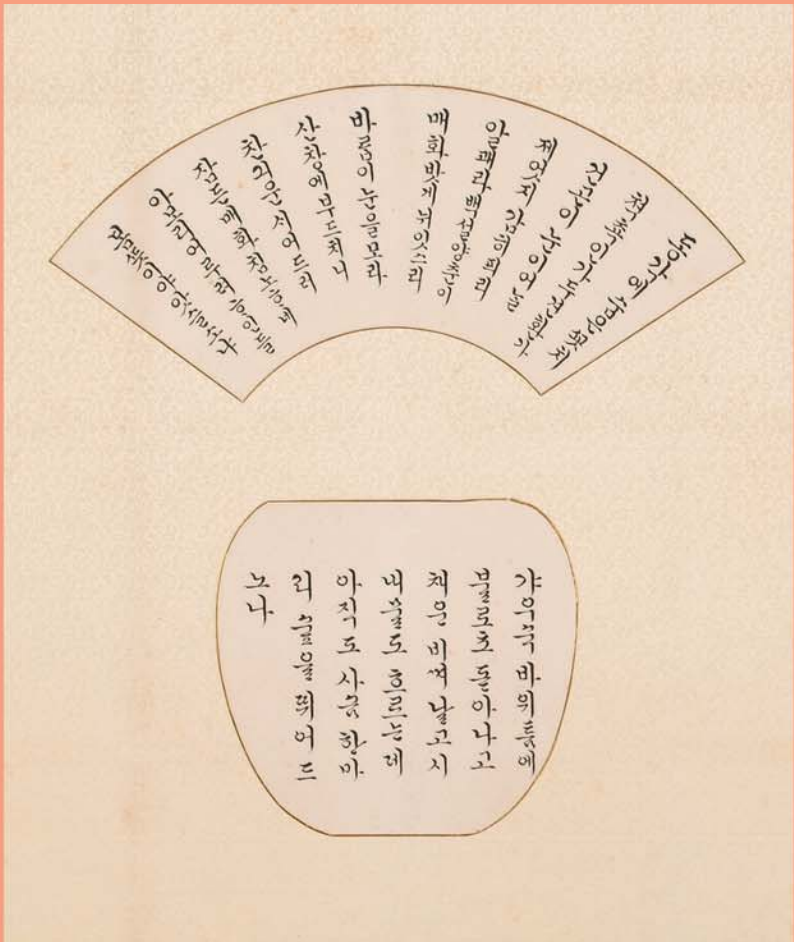
시고 詩稿 2점
종이에 먹/ 가리개
127x40cmx2

₩ 1,000,000-2,500,000

翰墨情緣重 彌深竹栢真 梅花銅坑雪 杯酒玉山春
明月千金夜 青眸萬里人 篆煙曾結就 槎屐不迷津

한묵으로 맺은 정이 깊고도 중하니, 대나무와 잣나무 같은 참된 마음 더욱 깊어라.
동갱의 매화는 눈 속에 피어나고, 한 잔 술에는 옥산의 봄기운이 어리네.
밝은 달은 천금 같은 밤을 비추고, 푸른 눈으로 만 리 밖 벗을 바라보네.
전향의 연기는 일찍이 맺어 피어오르고, 나막신을 신고 나서도 나루를 잃지 않으리.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춘일春日」



004

갈물 이철경 李喆卿

한산韓山/ 1914-1989

매화사 梅花詞: 안민영 安玟英 시

백자부 白磁賦: 조정 김상옥 卲丁 金相沃 시

종이에 먹/ 병풍
16.8x48.8cmx4, 23.5x25.3cmx4

₩ 2,000,000-5,000,000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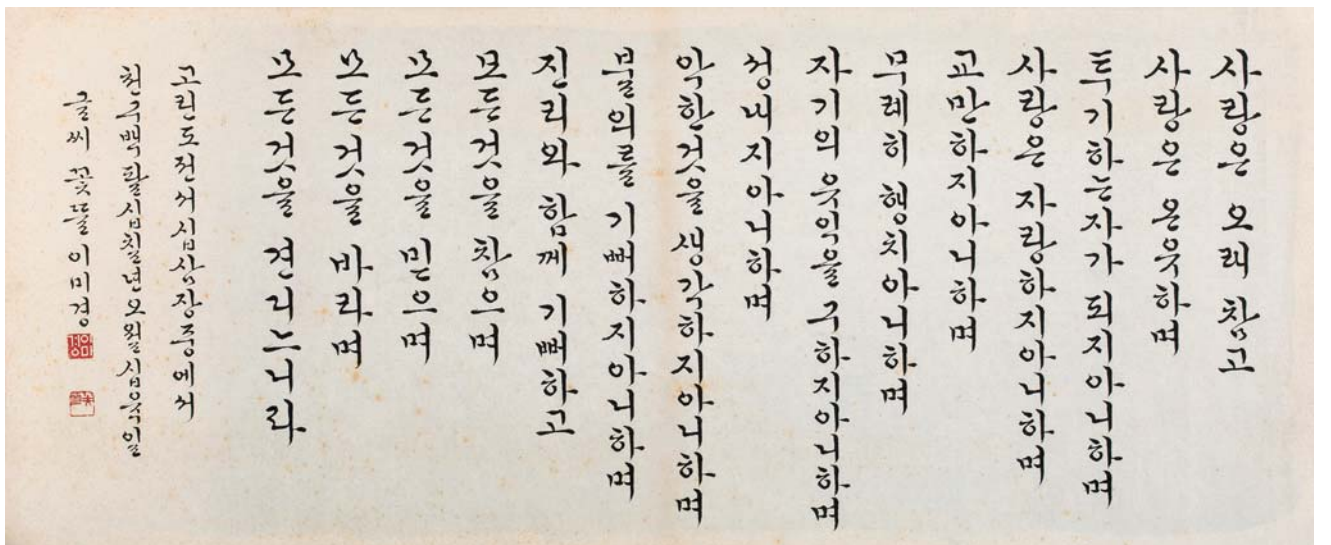
꽃들 이미경 李美卿

한산韓山/ 1918-2022

고린도전서 13장

1987년
종이에 먹/ 가배접
36.3x86.5cm

₩ 500,000-1,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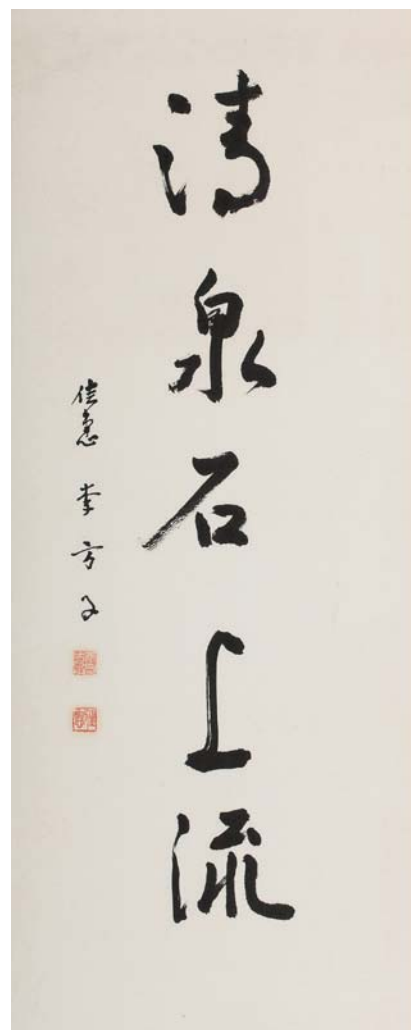
006

가혜 이방자 佳惠 李方子
1901-1989

명월 明月·청천 清泉 대련
1982년(임술)
종이에 먹/ 액자(프레임없음)
81x31.8cmx2

국정민강 國靜民康
철보서/ 액자
18.7x18.7cm

₩ 500,000-1,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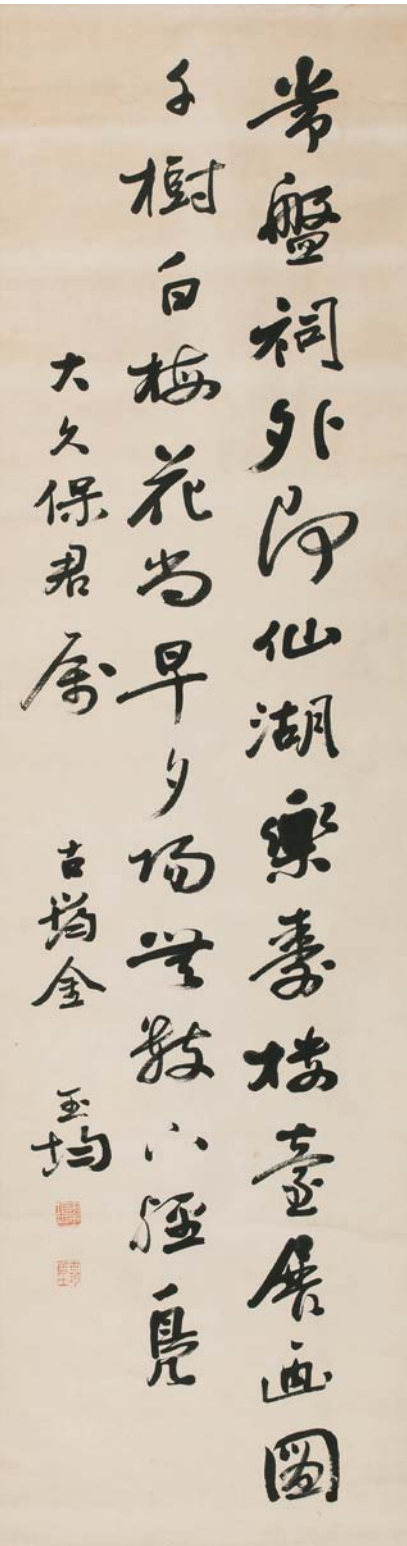
007

검여 유희강 劍如 柳熙綱
진주 晋州/ 1911-1976

시고 10폭병풍 詩稿十幅屏風:
동파선생매화시 東坡先生梅花詩 7수
종이에 먹/ 병풍
130x32.5cmx10

₩ 5,000,000-12,000,000





008

고균 김옥균 古筠 金玉均
안동安東, 백온伯溫/ 1851-1894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46x39.1cm

₩ 1,000,000-2,500,000



009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海州, 중명仲銘/ 1864-1953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족자
133.2x34.5cm

₩ 500,000-1,300,000

松竹梅歲寒三友 天地入四海同春
소나무, 대나무,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는 세 벗이요,
온 천하에는 한결같이 봄기운이 가득하네.

010

백범 김구 白凡 金九
안동安東/ 1876-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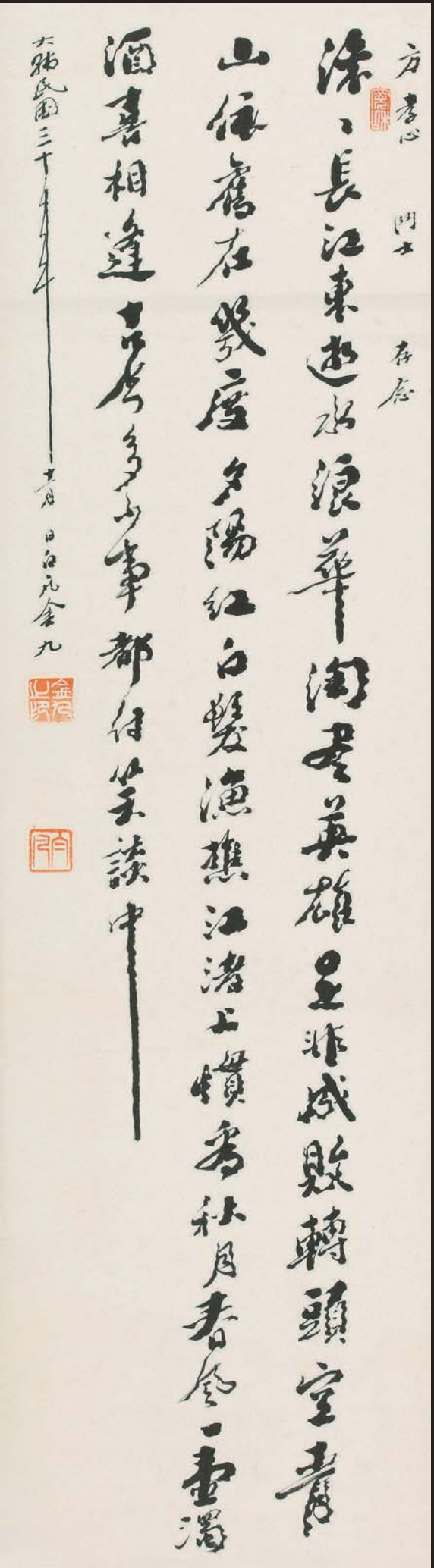
시고 詩稿
1948년
종이에 먹/ 액자
110.8x30.5cm

₩ 9,000,000-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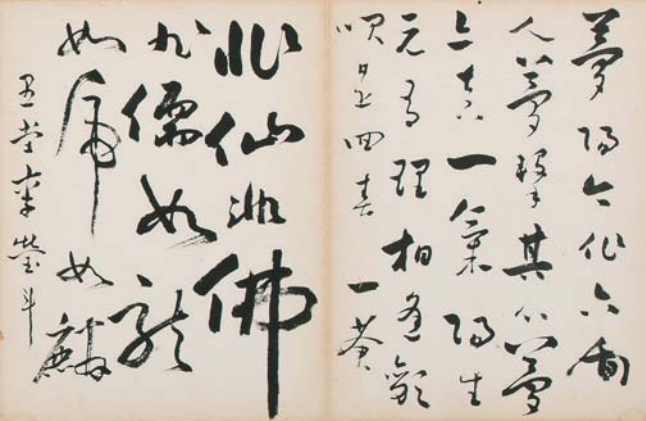
滾滾長江東逝水 浪花淘盡英雄
是非成敗轉頭空 青山依舊在
幾度夕陽紅 白髮漁樵江渚上
慣看秋月春風 一臺濁酒喜上逢
古今多少事 都付笑談中

굽이쳐 동으로 흐르는 긴 강물
그 물결에 옛 영웅 모두 사라졌네.
시비와 승패는 모두 다 헛되구나.
청산은 변함이 없는데,
지는 붉은 노을은 몇번이던가.
강가의 백발의 고기잡이와 나무꾼은
가을달과 봄바람을 바라보며
탁주 한 병 놓고 기쁘게 마주앉아
고금의 수많은 일들을 담소에 담았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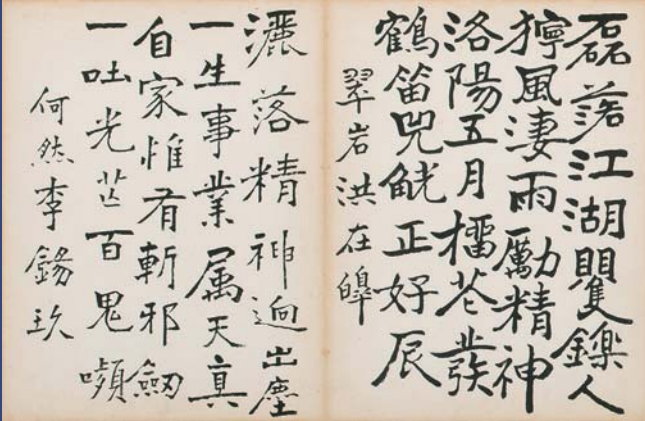
양신楊慎「임강선臨江仙」



Lot.011 몽양선생수연첩 夢陽先生壽宴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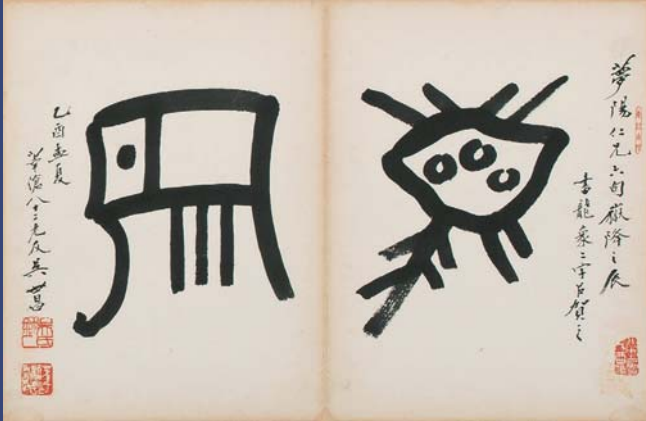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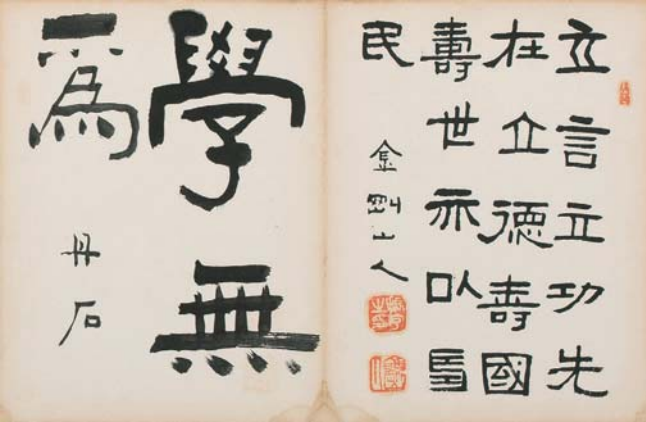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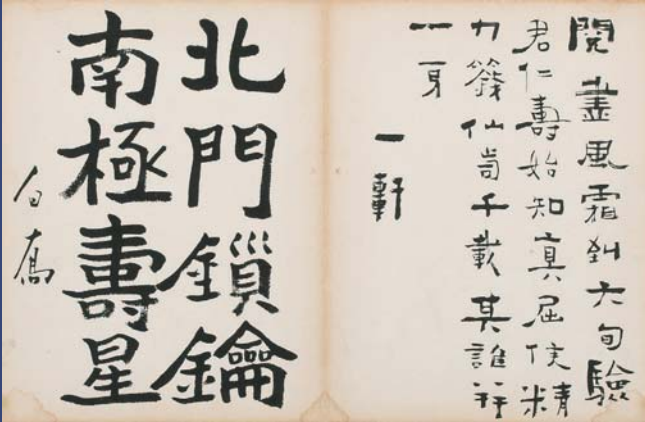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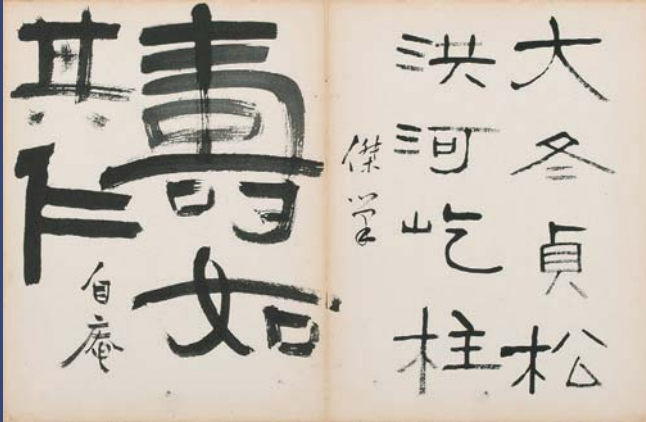
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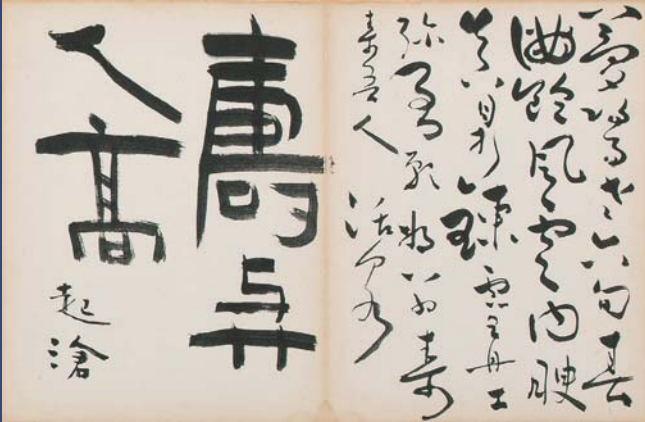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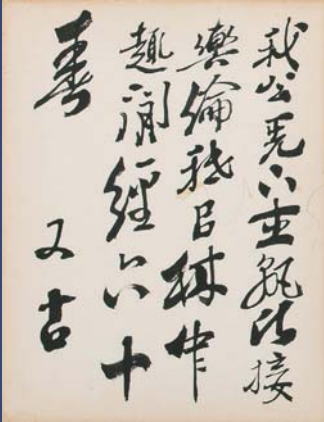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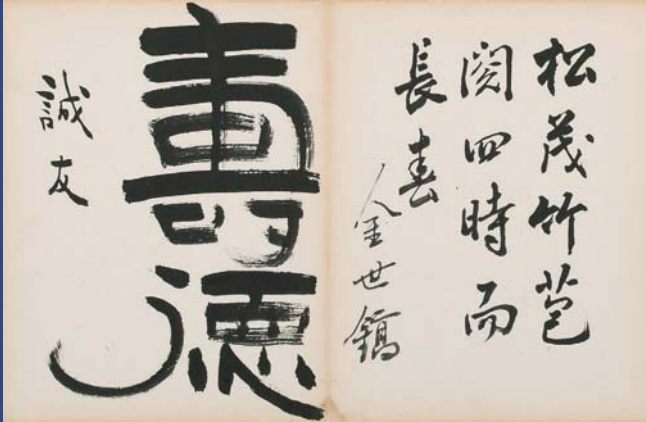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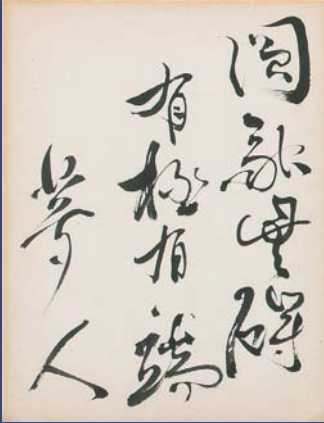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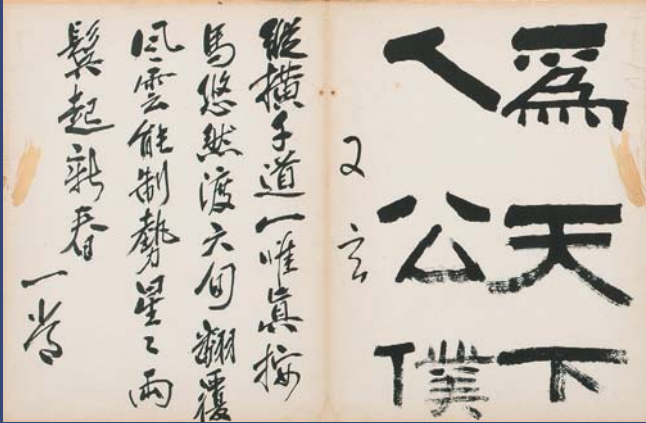
17



16



24



23

작가목록	1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1964-1953
	2	금강산인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1883-1950
	3	취암 홍재호 翠岩 洪在暉	생몰년미상
	4	하연 이석구 何然 李錫玖	생몰년미상
	5	일창 허발 一蒼 許潑	1872-1955
	6	오당 이영두 五堂 李瑩斗	생몰년미상
	7	이걸소 李傑巢	생몰년미상
	8	자암 自庵	생몰년미상
	9	오당 이수목 五堂 李壽穆	1890-1978
	10	북두 北斗	생몰년미상
	11	일현 허규 軒 許珪	1884-1957
	12	백교 白喬	생몰년미상

13	금강산인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1883-1950
14	단석 丹石	생몰년미상
15	김세호 金世鎬	생몰년미상
16	성우 홍증식 誠友 洪澄植	생몰년미상
17	우고 김홍기 又古 金鴻機	?-1946
18	활천 活泉	생몰년미상
19	기창 起滄	생몰년미상
20	춘고 이인식 春阜 李仁植	1901-1963
21	박종혁 朴鍾赫	생몰년미상
22	현우현 玄又玄	생몰년미상
23	일상 一常	생몰년미상
24	몽인 夢人	생몰년미상

22

011

몽양선생수연첩 夢陽先生壽宴帖

1945년(을유)
종이에 먹·수묵/ 첩
26.8x20.8cm(26면)

₩ 15,000,000-32,000,000

출품작은 1946년 음력 4월, 몽양 여운형夢陽 呂運亨의 회갑을 기념하여 여러 인사들이 글과 그림을 남긴 서화첩이다.

여운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언론·사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한 정치인이다. 여운형은 1886년 음력 4월 22일 출생으로, 1946년 회갑을 맞아 그가 8·15 광복 직전까지 은거를 가장하며 지하운동을 벌였던 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봉안마을에서 지인과 동지들이 그의 환갑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당시 회갑연에서 촬영된 사진과 관련 기록에 따르면 김진우金振宇, 조동호趙東祐, 이만규李萬珪 등 오랜 동지를 비롯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의 허헌許憲,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원봉金元鳳 등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 밖에도 여운형의 육촌 동생 여운각을 비롯해 이여성李如星, 여광현, 여준현, 유영준劉英俊, 이호재, 성인기, 김문일 등의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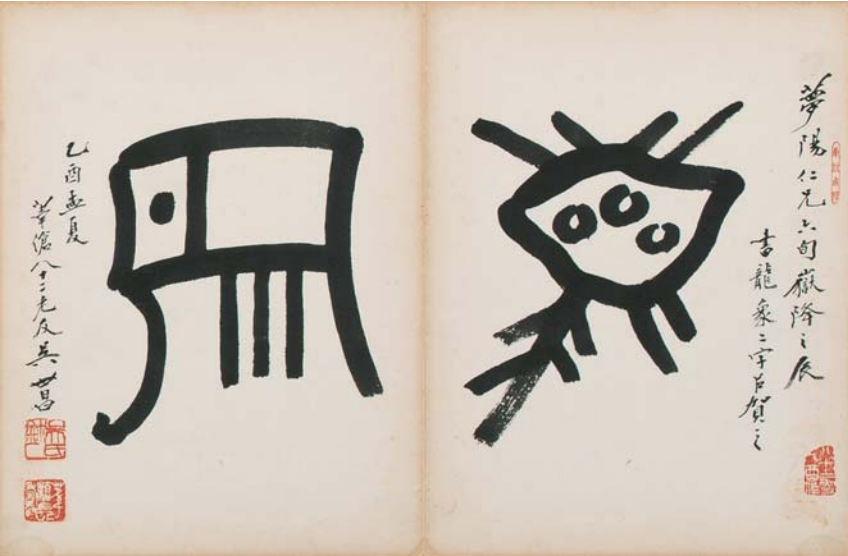
서화첩에는 오세창吳世昌을 비롯하여 김진우, 홍재호洪在鰲, 이석구李錫玖, 허발許潑, 이영두李瑩斗, 허규許珪, 김세호金世鎬, 홍증식洪增植, 김홍기金鴻機, 이인식李仁植, 현우현玄又玄 등의 인물들이 여운형의 회갑을 축하하는 뜻을 담아 써준 글씨와 그림이 담겨있다. 이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여운형과 정치·사회적으로 뜻을 함께했던 인물들이다.

김진우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여 재무부를 맡는 등 광복과 해방 이후의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활동을 함께했으며 해방 후에도 여운형이 결성한 조선인민당에서 감찰위원장을 맡아 그 인연을 이어갔다. 이석구 역시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한 데 이어 조선인민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우현 또한 건국동맹의 주요 인물로서 해방 후 조선인민당 당무부 위원을 맡았다. 허규 역시 조선건국동맹에 참여하여 여운형과 일제 말 독립과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던 인물이다.

한편 홍재호는 1927년 결성되어 활동한 한시 문학 동우회이자 시시詩社인 동인음사同人吟社의 회원으로, 정치적 동지들과는 다른 문화계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처럼 서화첩에는 일제강점기 건국동맹에서부터 해방 후 정치활동을 함께한 동지들과 문화계 교류 인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당시 여운형의 정치적·문화적 인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결당傑堂·자암自庵·북두北斗·백교白喬·단석丹石·활천活泉·기창起滄·일상一常 등의 호를 사용한 인물들의 글씨도 함께 남아 있다. 다만 당시 참석자들의 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본명 대신 별호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이 첩에 쓰인 호만으로 해당 인물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 첩은 여운형이라는 인물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의 필목을 한데 모은 기념 서화첩인 동시에, 여운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립운동과 해방 전후의 인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세창과 김진우 같은 독립운동가이자 서화가뿐 아니라, 건국동맹과 조선인민당에서 여운형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의 필목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당시 여운형의 사회적 위상과 그를 둘러싼 정치·문화계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1 위창 오세창 〈용상 龍象〉



2 금강산인 김진우 〈괴석묵죽 怪石墨竹〉

壽高風清夢陽其人

높은 연륜에 맑은 풍모,
몽양이 바로 그 사람이로다.



4 하연 이석구 〈시고 詩稿〉

灑落精神迥出塵 一生事業屬天真
自家惟有斬邪劍 一吐光芒百鬼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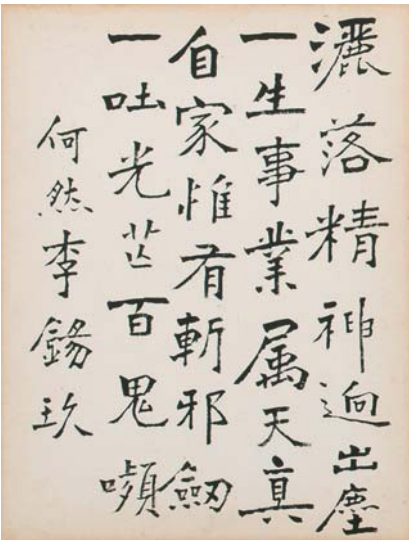
맑고 호방한 정신은 속세를 훌쩍 벗어났고,
한평생의 행적은 천진한 본성에서 나왔네.
오직 샷됨을 베어내는 칼 한 자루 지녔으니,
한번 번뜩이는 빛을 내뿜으면
온갖 잡귀가 얼굴을 찌푸리네.



22 현우현 〈위천하인공업爲天下人公僕〉

爲天下人公僕

천하의 사람을 위한 공복이 되다.



012

해사 이준 海史 李儁 외
전주全州, 순칠월七/ 1859-1907

합작서화첩 合作書畫帖
종이에 먹 외/ 첩
14.8x17.2cm (13점)

₩ 3,000,000-6,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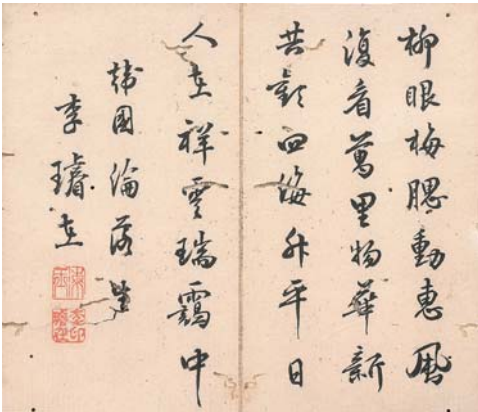


이 첩은 해사 이준海史 李儁이 일본 망명 시절 교류하던 여러 일본 서화가들과 함께 글과 그림을 남긴 합작서화첩이다.

이준은 대한제국기 법관이자 독립운동가로, 본명은 이선재李璿在이며 해사海史·일성一醒·청하靑霞 등의 호를 사용하였다.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뒤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를 지냈으며,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 등 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1907년에는 고종의 특사로 이상설李相高·이위중李璿鍾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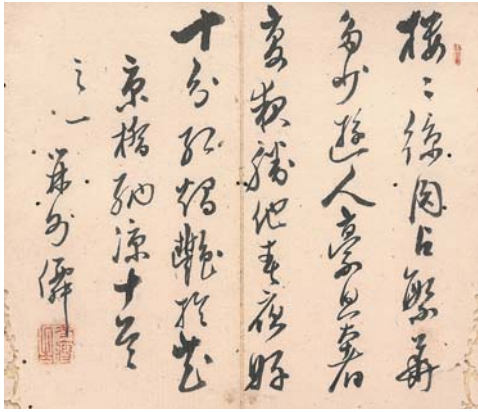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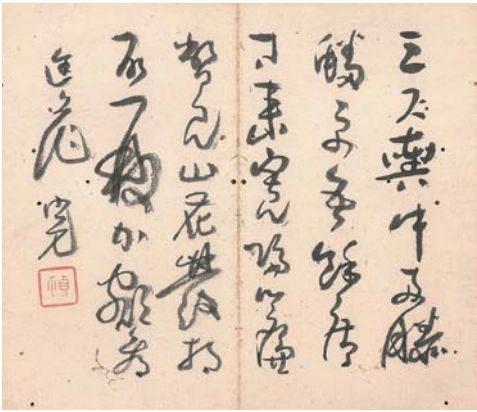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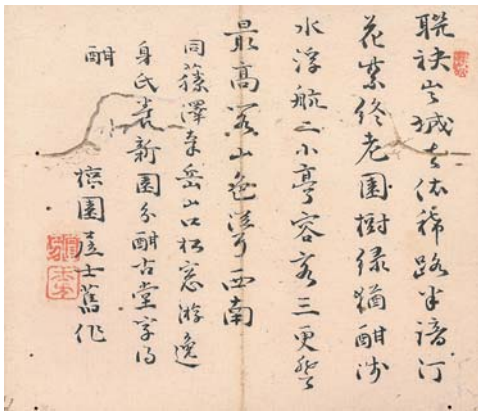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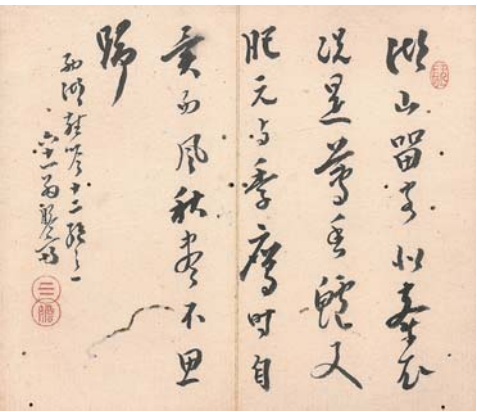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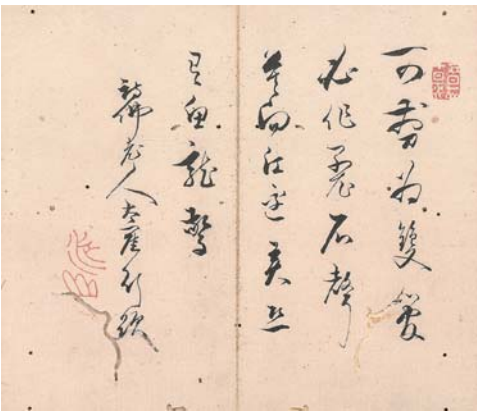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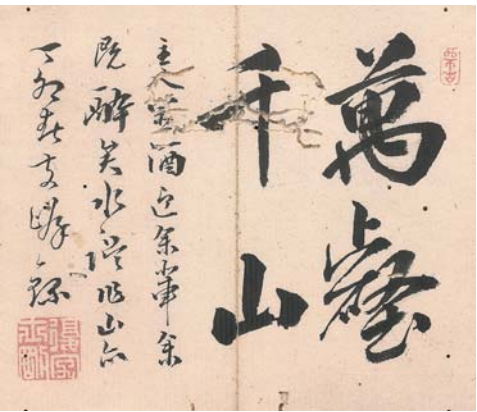
柳眼梅腮動惠風 復看萬里物華新
共歡四海升平日 人在祥雲端霧中

버들눈과 매화의 고운 빛에
따스한 바람이 일고,
다시 보니 만 리 온 세상의
경물이 새롭네.
사해가 태평한 날을 함께 기뻐하니,
사람은 상서로운 구름과
서기 어린 안개 속에 있네.



이준은 칠언시를 쓰고 말미에 ‘한국 윤락생 이선재韓國 淪落生 李璿在’라고 서명한 뒤 ‘해옥海玉’과 ‘이선재李璿在’ 인장을 찍었다. ‘이선재李璿在’는 그가 ‘이준李儁’으로 개명하기 전 사용하던 이름으로, 일본 망명에서 돌아온 뒤부터 이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옥海玉’은 이준이 양주 직곡산방에서 윤현궁으로 돌아온 흥선대원군을 만나고 온 뒤 이조참판 김병시金炳始를 찾아가 그의 문객이 되었을 때 김병시가 지어준 호로 전한다.

이준은 일본 망명과 체류를 통해 당시 일본 사회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망명 시기의 구체적인 행적은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출판작에 여러 일본 서화가들의 작품이 이준의 글씨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현지 문인·서화가들과 실제로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준은 전문 서화가로 활동한 인물은 아니지만 한문과 서예에 익숙한 근대 지식인으로서 일본의 문인·서화가들과 작품을 함께 남겼으며, 이 첩은 그의 일본 체류기 교류 관계와 문화적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13

쇠귀 신영복 牛耳 申榮福

평산平山/ 1941~2016

상선약수 上善若水

종이에 먹/ 액자
33x102cm

₩ 2,500,000-5,000,000

水善利萬物而 處衆人之所惡 唯不爭無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른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014

혜산 박두진 兮山 朴斗鎭

경주慶州/ 1916~1998

학양다년단정심 鶴養多年丹頂深

1986년(병인)
종이에 먹/ 액자
32x128cm

₩ 400,000-1,000,000



015

후광 김대중 後廣 金大中

김해金海/ 1924~2009

애 愛 : 부채

1989년
종이에 먹/ 액자
34x34.5cm

₩ 1,000,000-2,500,000



016

위당 신헌 威堂 申櫟
평산平山, 국빈國賓/ 1810-1884

오운루 烏雲樓
종이에 먹/ 액자
22.9x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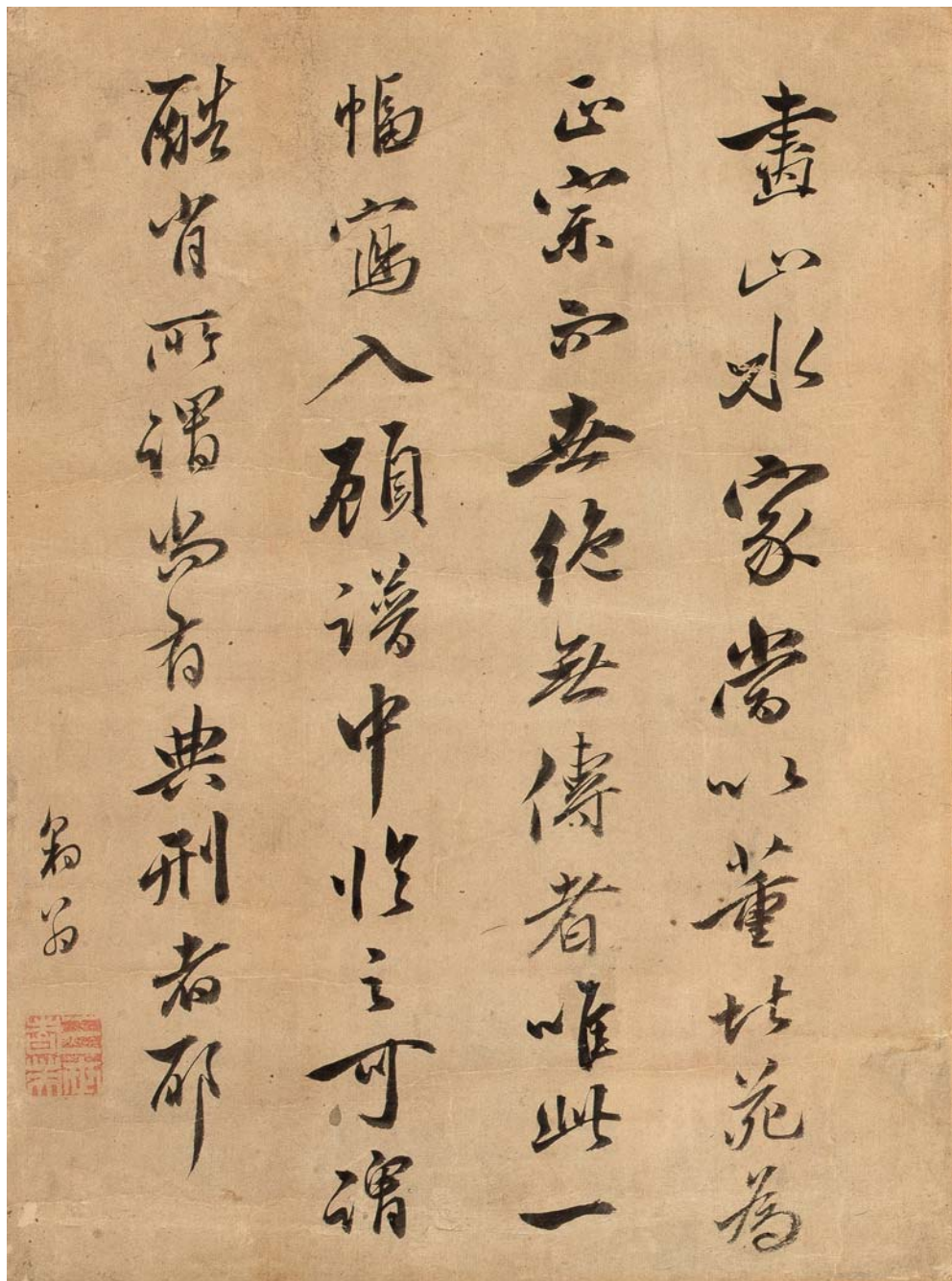
₩ 800,000-2,000,000

017

담원 정인보 蒼園 鄭寅普
동래東萊, 경업經業/ 1892-1950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액자
19.2x61.5cm

₩ 500,000-1,300,000



018

표암 강세황 豹菴 姜世晃
진주晉州, 광지光之/ 1713-1791

화평 畫評
종이에 먹/ 액자
29.3x21.8cm

₩ 3,000,000-7,000,000

畫山水家 當以董北苑爲正宗 而世絕無傳者
唯此一幅寫入顧譜中 臨之可謂酷肖所爲 尙有典刑者耶

산수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동원董源을 정통으로 삼아야 하나, 세상에 전하는게 하나도 없다. 오직 이 한 폭이 고씨의 화보에 실려 있어 이를 임모하였는데, 동원의 화풍을 매우 닮아 옛 전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만하다.

019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서간 書簡：이당 조면호 怡堂 趙冕鎬 에게

종이에 먹/ 액자
21.6x4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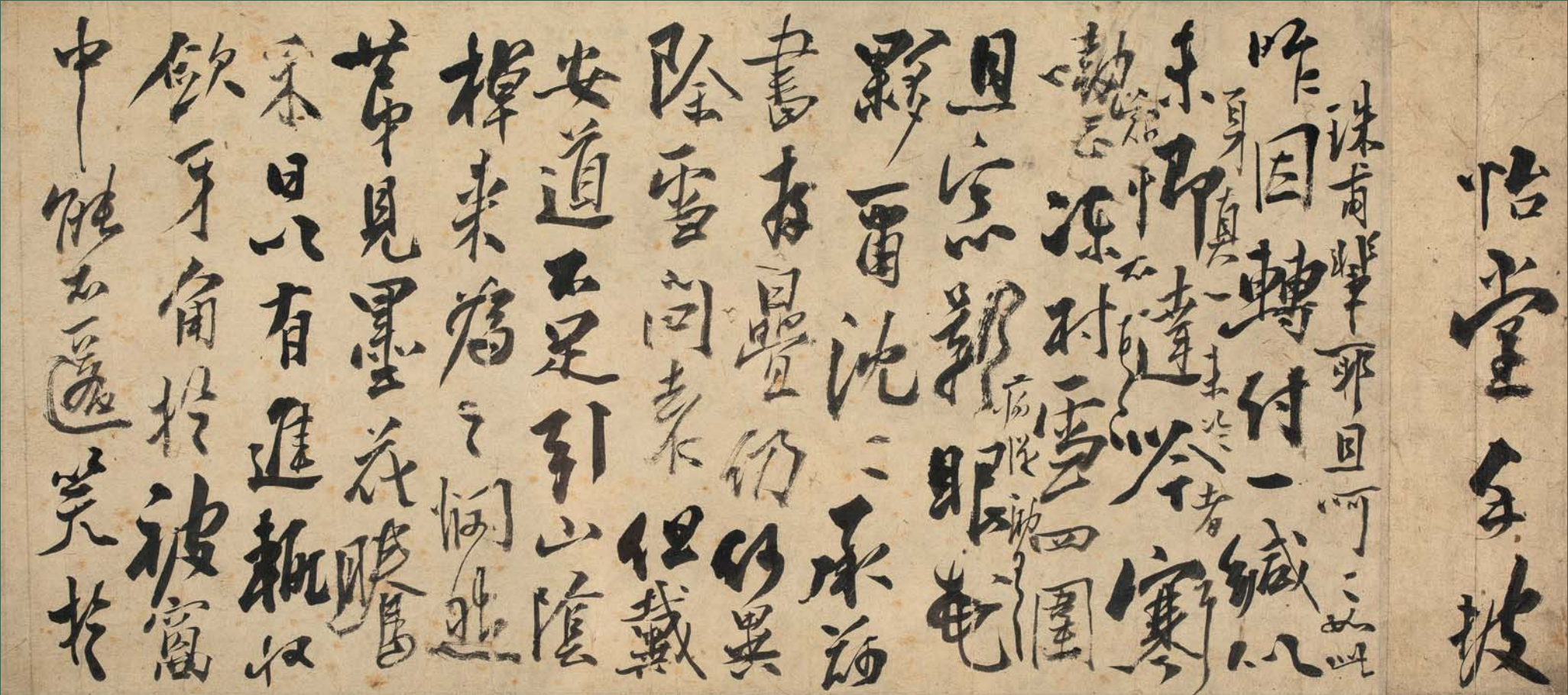
₩ 15,000,000-32,000,000

怡堂手披

昨因轉付一緘, 似未即達. 吟寒嚙凍, 村雪四圍, 且窓影眼花, 夥爾沈沈, 承荷書存疊仍, 何異除雪問衰. 但戴安道不足引山陰棹來, 爲之憫然. 第見墨花騰采, 日以有進, 輒收斂斂牙角於被窩中, 能不匿笑於珠甫輩耶. 且呵呵. 如此身, 眞一未冷者耳. 艱中不具. 病從溺具.

이당에게

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인편에 편지 한 통을 부쳤는데, 아직 곧바로 전달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시를 읊어도 춥고 잠꼬대마저 일어붙을 지경인데, 마을에는 사방으로 눈이 둘러 쌓였습니다. 게다가 창가의 빛에 눈까지 침침하여 그저 깊이 움츠러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거듭 보내준 편지를 받으니, 눈을 헤치고 찾아와 쇠약한 이를 문안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만 내가 대안도戴安道만 못하여 산음山陰의 배를 저어 찾아오게 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먹빛이 꽃처럼 피어나고 광채가 솟는 것을 보니 날로 진전이 있습니다. 문득 이불 속에서 주름진 얼굴과 이빨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주보珠甫 무리에게 속으로 웃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하. 이런 몸이야말로 참으로 아직 완전히 식지는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힘겹게 쓰느라 말을 다 갖추지 못합니다. 병중이라 이름은 생략합니다.





020

석고문 石鼓文 탁본첩 :
검여 유희강 劍如 柳熙綱 구장본

종이에 탁본, 먹/ 첩
32.8x15.8cm

₩ 7,000,000-15,000,000

석고문은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석각문자石刻文字로, 고대 문자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석고石鼓’는 거대한 둥근 돌을 상하로 절단하여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 그 형태가 북鼓처럼 생겼다 하여 ‘석고’라 불린다. 석고문은 이러한 석고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일컫는다. 당나라 초기에 중국 섬서성의 들판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까지 총 10개의 석고가 전해진다. 각 석고마다 4언시 한 수씩, 총 10수가 새겨져 있다. 이 석각문의 내용은 사냥과 제향 등의 의식을 노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진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한다.

출품작은 이 10개의 석고문을 탁본한 후, 전서체로 정리하여 첩으로 꾸민 것이다. 각 석고의 탁본 뒤에는 해당 시문의 전문을 전서체로 옮겨 적어 놓았다. 표지에는 ‘석고문石鼓文 검여진장劍如珍藏’이라는 표제가 남아 있어, 이 첩이 검여 유희강劍如 柳熙綱이 소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희강은 청년 시절 중국 유학 중 금석학을 깊이 연구하며 평생 관련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 첩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집한 자료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 첩의 내부에는 유명한 고서점 통문관의 표찰이 남아 있어 당시 법첩의 유통 경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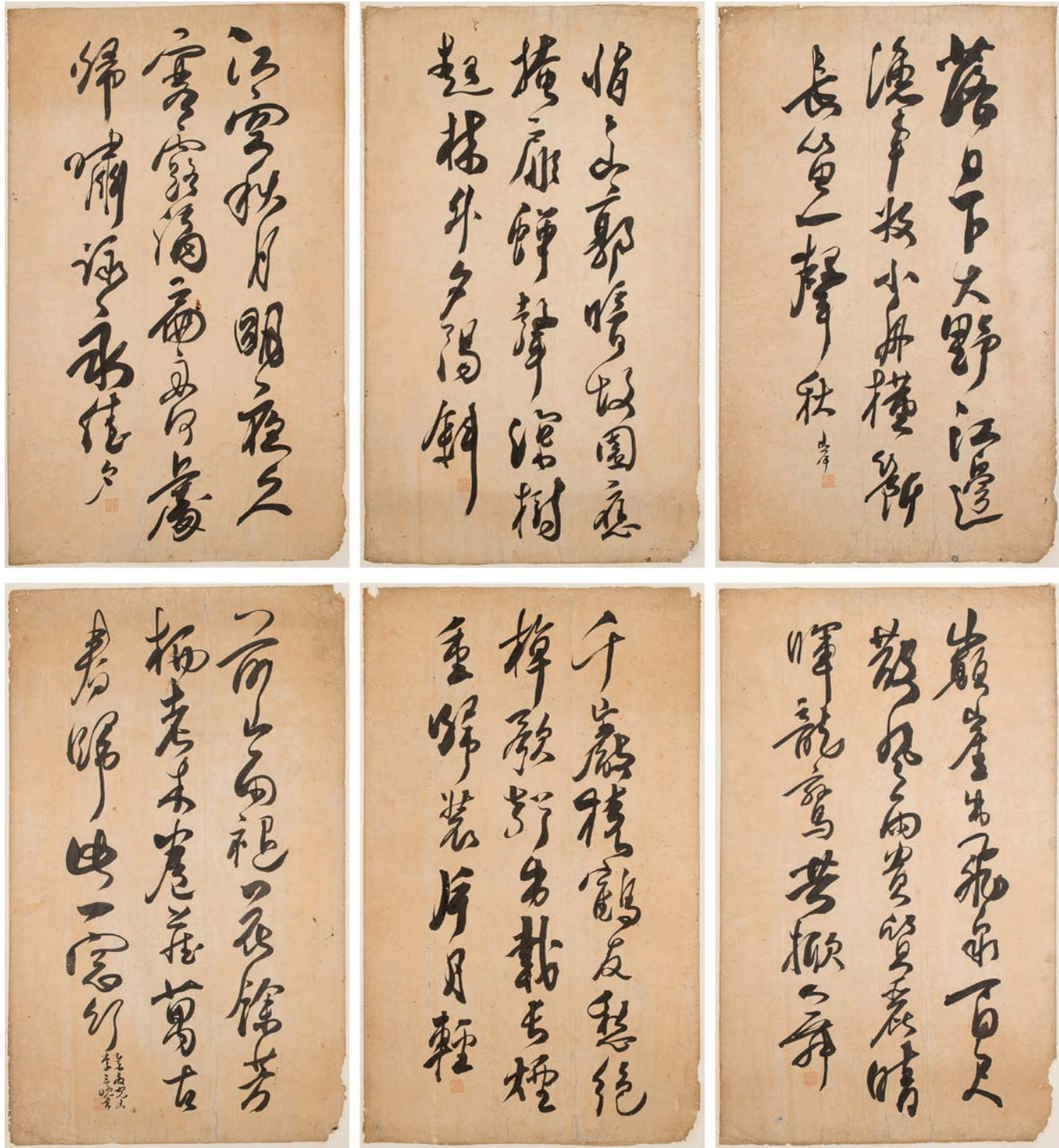
021

성재 김태석 惺齋 金台錫
경주慶州 / 1875-1953

전예첩 篆隸帖
1932년(임신)
종이에 먹/ 첩
33x24cm(60면)

₩ 1,300,000-2,8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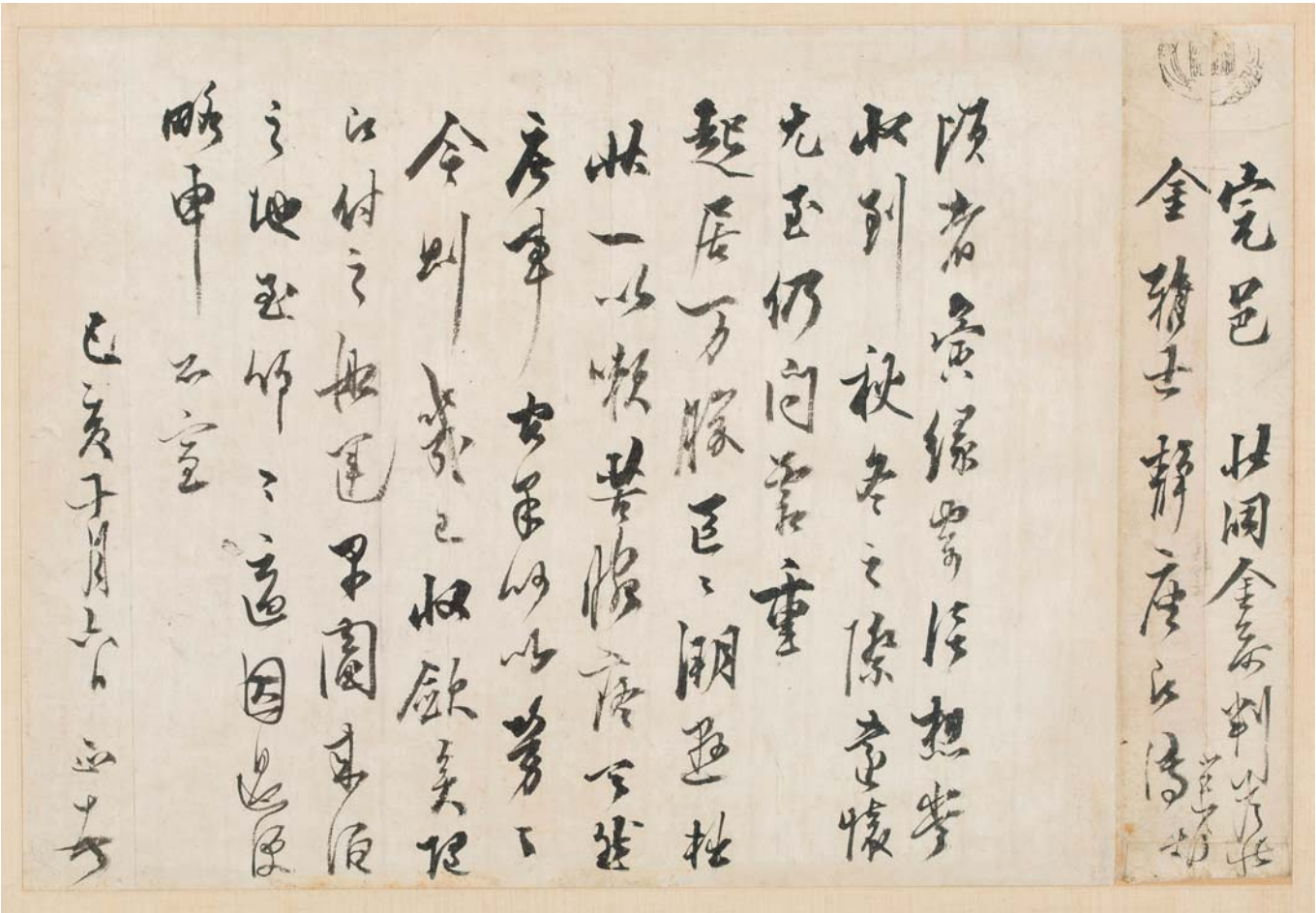


022

창암 이삼만 蒼巖 李三晩
전주全州, 윤원允遠/ 1770-1847

시고 6폭병풍 詩稿六幅屏風
1825년(을유)
종이에 먹/ 병풍
80.5x48.4cmx6

₩ 2,500,000-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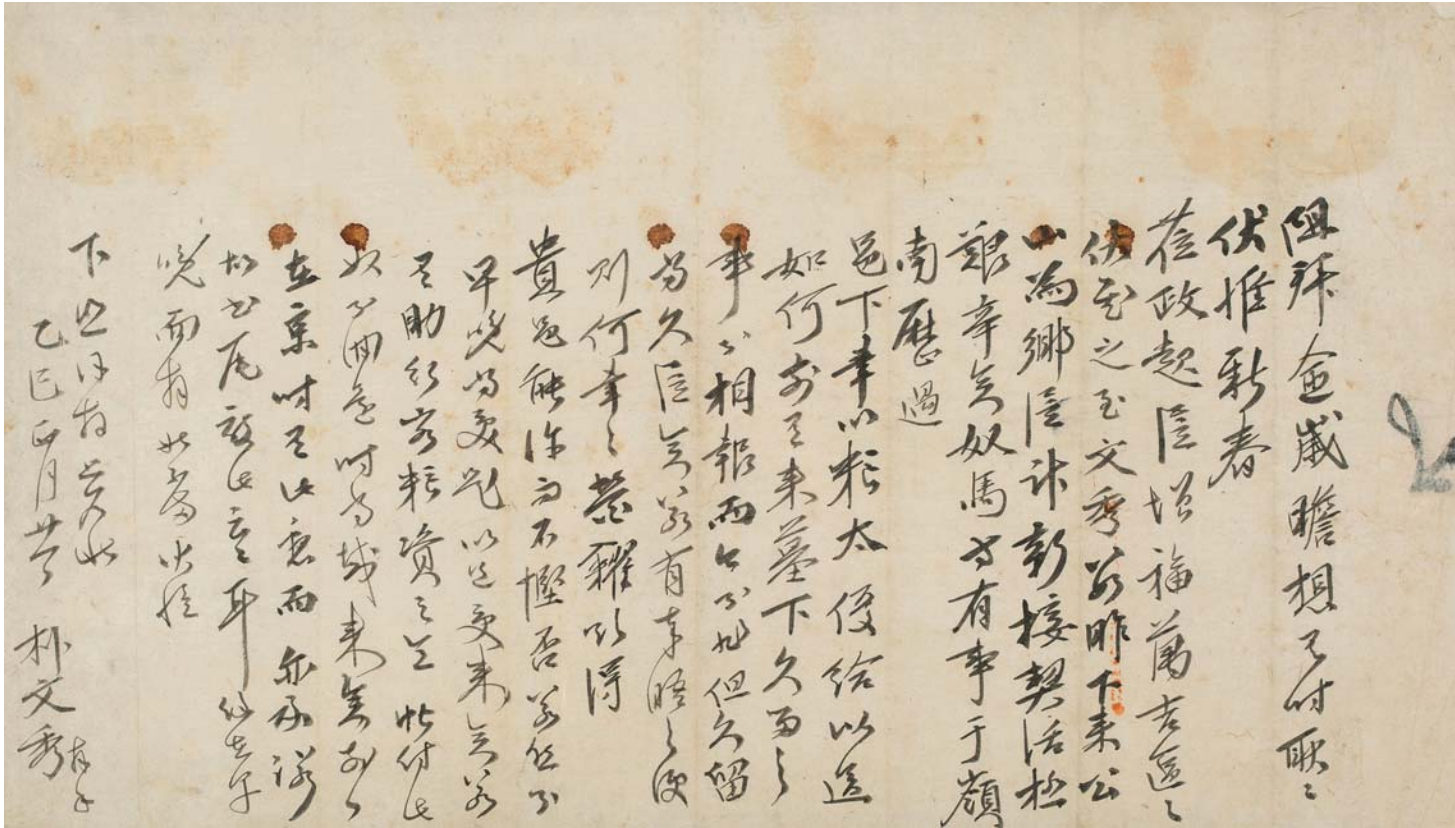


023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경주慶州, 원춘元春/ 1786-1856

서간 書簡
1839년(기해)
종이에 먹/ 액자
32x47.3cm

₩ 8,000,000-16,000,000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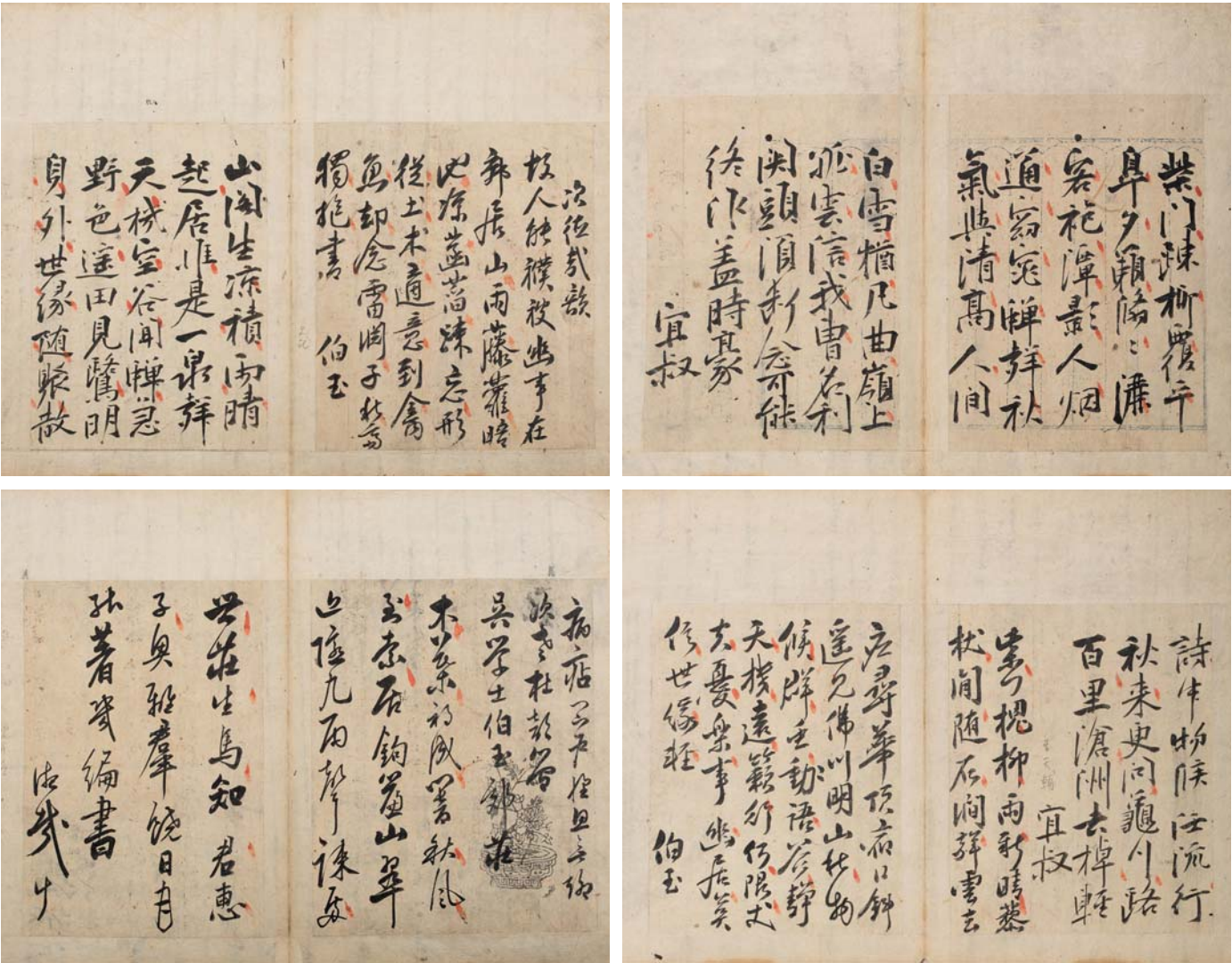
기은 박문수 耆隱 朴文秀

고령高靈, 성보成甫/ 1691-1756

서간 書簡

1725년(을사)
종이에 먹/ 액자
27.8x49cm

₩ 2,200,000-5,000,000



025

뇌원 남유용 雷淵 南有容

의령宜寧, 덕재德哉/ 1698-1773

월곡 오원 月谷 吳瑗

해주海州, 백옥伯玉/ 1700-1740

진암 이천보 晉庵 李天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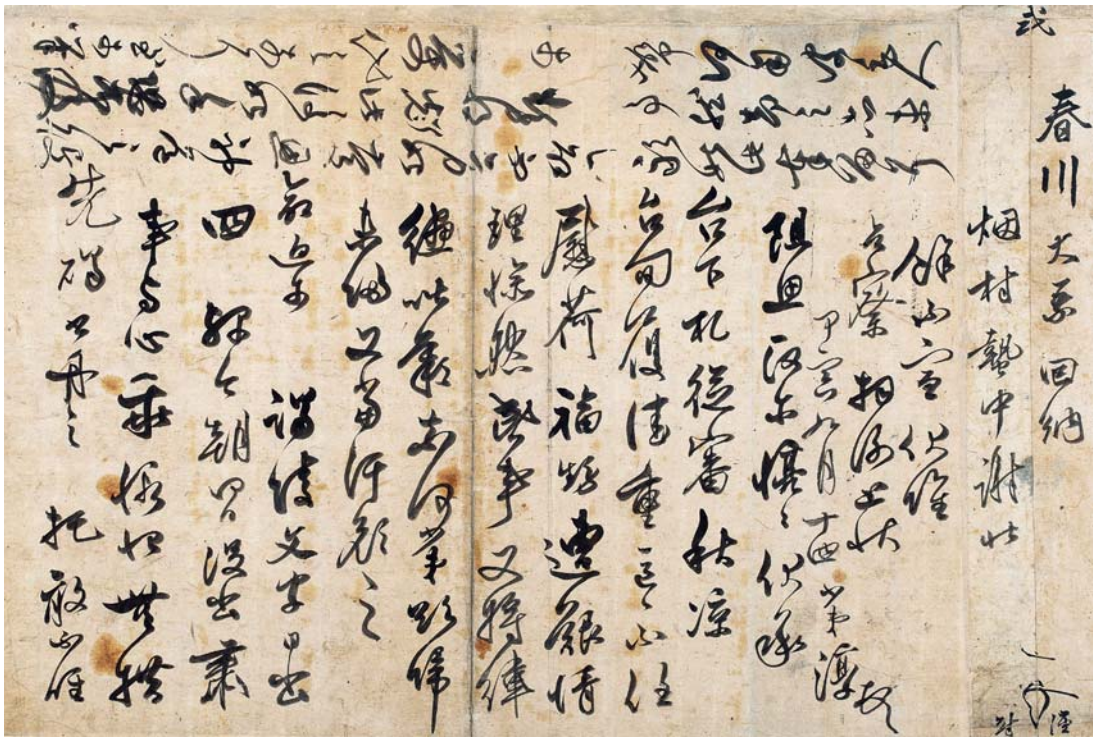
연안延安, 의숙宜叔/ 1698-1761

시고 詩稿

종이에 먹/ 첩
33.8x22.8cm(8면)

₩ 1,200,000-2,700,000

월곡 오원月谷 吳瑗과 진암 이천보晉庵 李天輔가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의 시운을 뽑아 지은 칠언시 2수, 오원의 별장에 모여 지은 이천보의 칠언시 1수, 남유용이 오원에게 보낸 오언시와 이에 차운한 오원의 오언시까지 총 5수의 시가 적혀 있다. 각 시는 오원의 『월곡집月谷集』, 이천보의 『진암집晉庵集』, 남유용의 『뇌원집雷淵集』에 수록되어 있다.



026

백하 윤순 白下 尹淳
해평海平, 중화仲和/ 1680-1741

서간 書簡
1734년(갑인)
종이에 먹/ 액자
38.8x5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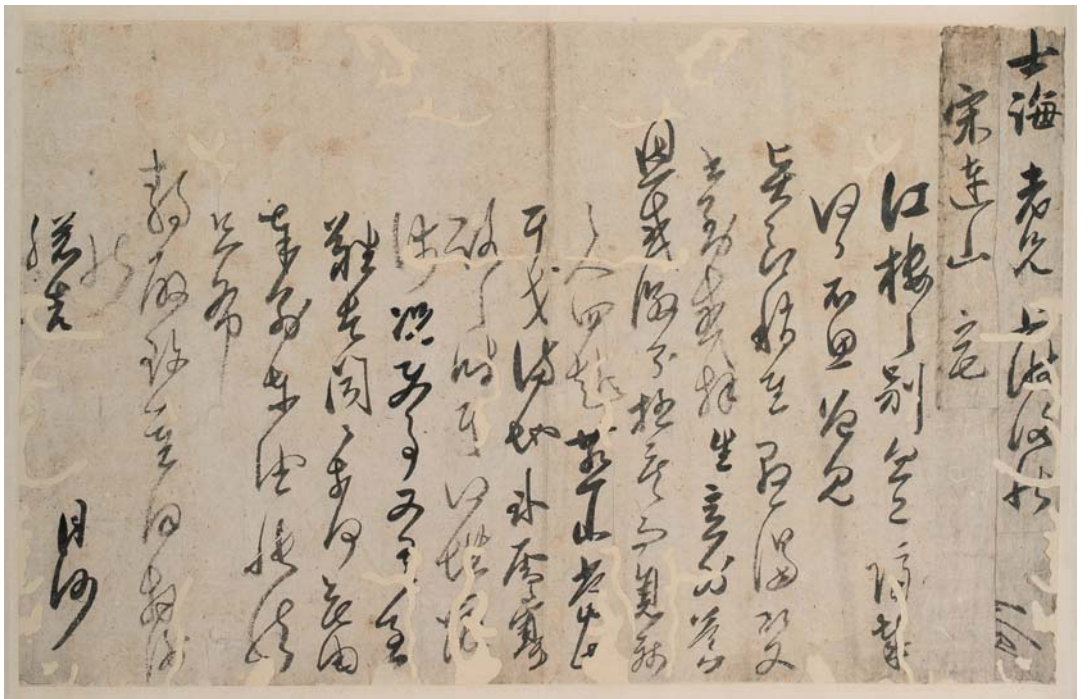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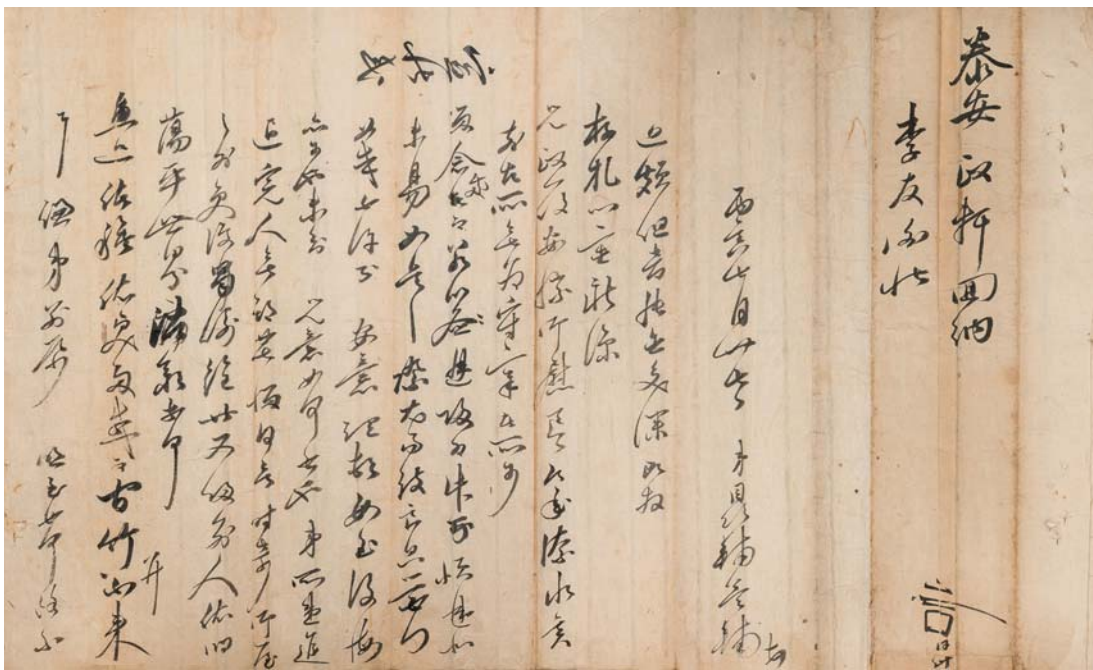
₩ 500,000-1,300,000

027

삼주 이정보 三洲 李鼎輔
연안延安, 사수士受/ 1693-1766

서간 書簡
1746년(병인)
종이에 먹/ 가배접
34.3x57.4cm

₩ 400,000-1,000,000



028

월사 이정구 月沙 李廷龜
연안延安, 성징聖徵/ 1564-1635

서간 書簡
종이에 먹/ 가배접
25.4x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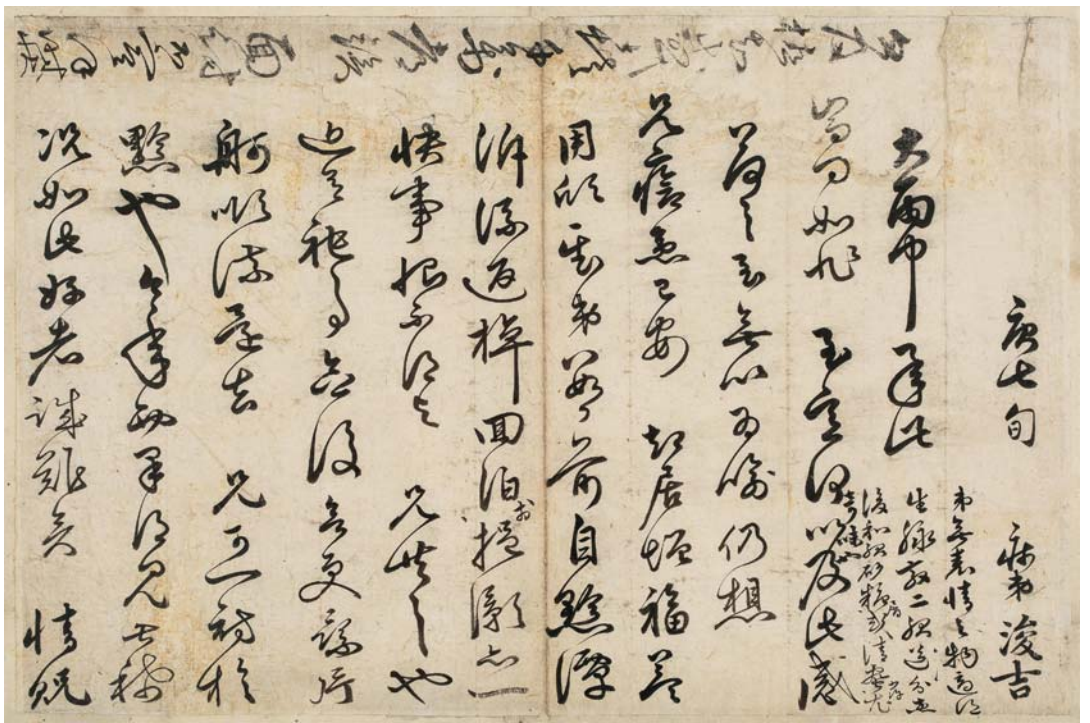
₩ 1,000,000-2,300,000

029

동춘당 송준길 同春堂 宋浚吉
은진恩津, 명보明甫/ 1606-1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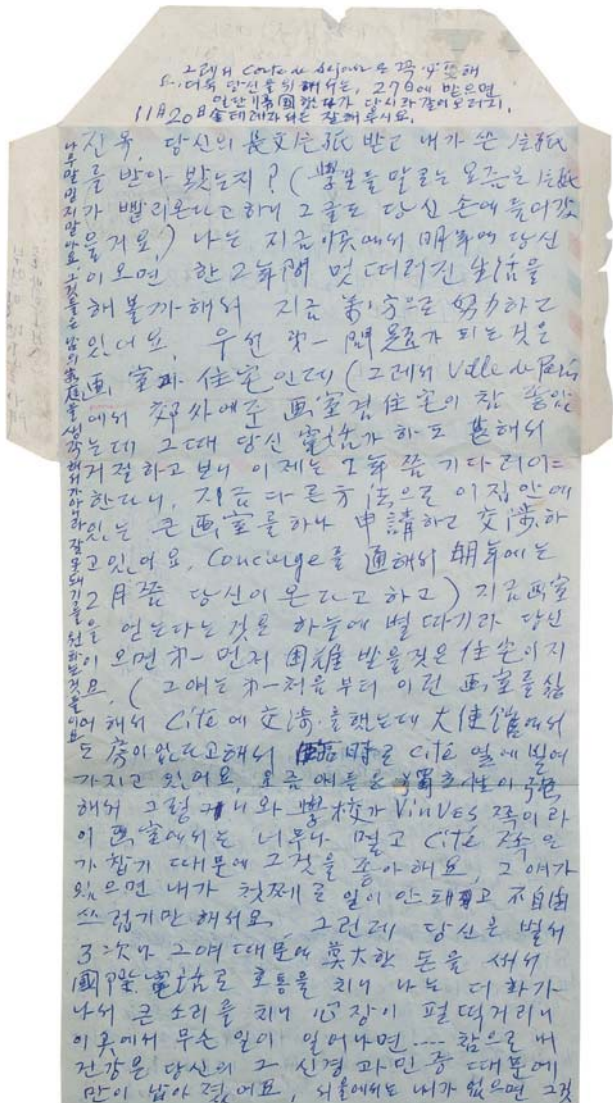
서간 書簡
종이에 먹/ 액자
30.5x46cm

₩ 500,000-1,300,000





외지



내지

030

남관 南寬

영양英陽/ 1911-1990

편지

1979년

종이에 펜

31.5x14.8cm

₩ 400,000-800,000

031

김수환 金壽煥

1922-2009

이문희 李文熙 외

1935-2021

이문희 대주교 착좌 기념 서명 접시

李文熙 大主教 着座 記念 署名 楪匙

도자에 안료

35.8x35.8cm

₩ 2,500,000-5,000,000



1986년 7월 5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착좌한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의 착좌를 기념하여 제작된 도자 접시이다. 접시 중앙에는 이문희 대주교의 문장紋章과 사목표어인 'SICUT IN COELO ET IN TERRA'(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그려 넣고, 상단에는 착좌 기념 문구와 날짜를 청화로 적었다.

둘레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이문희·김남수·박정일·지학순·이갑수·김창렬·정진석·윤공희·장병화·강우일·경갑룡·김옥균 등 당시 천주교 성직자들과 외국인 성직자들의 친필 서명이 남아 있다.



참고사진 | 1986년 7월 5일 이문희 대주교 교구장 착좌식 (사진출처 : 천주교대구대교구)



032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신금강산도 新金剛山圖
2009년(기축)
종이에 수묵/ 액자
11.6x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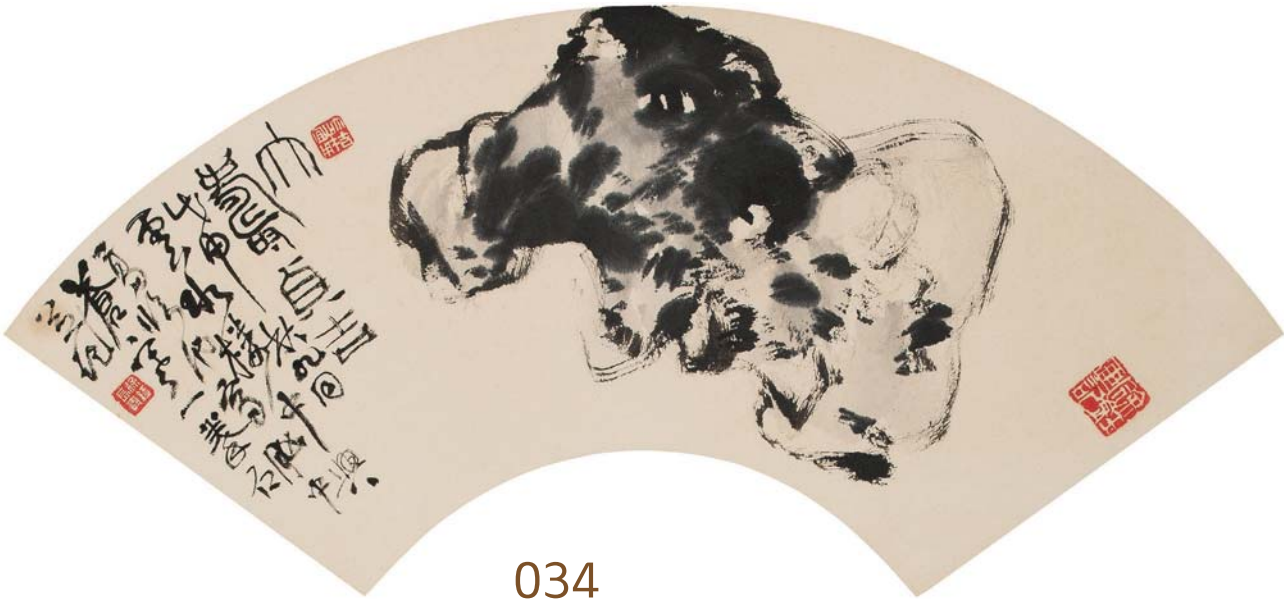
₩ 1,000,000-2,500,000

033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草溪/ 1899-1976

시창청공 詩窓淸供
1944년(갑신)
종이에 수묵/ 액자
125.5x33.2cm

₩ 800,000-2,000,000



034

산정 서세옥 山丁 徐世鈺
달성達城/ 1929-2020

괴석 怪石
종이에 수묵/ 액자
16.8x47.5cm

₩ 800,000-2,500,000

035

우현 송영방 牛玄 宋榮邦
은진恩津/ 1936-2021

묵매 墨梅
1985년(을축)
종이에 수묵/ 액자
36x31.5cm

₩ 400,000-1,000,000





036

월전 장우성 月田 張遇聖
단양丹陽/ 1912-2005

무화과나무와 새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7.5x32.5cm

₩ 500,000-1,300,000



037

죽사 이응노 竹史 李應魯
전의全義/ 1904-1989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족자
146.2x40.5cm

₩ 600,000-1,400,000



038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1913-2001

달밤 : 구암장 龜岩莊에서
1954년(갑오)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50x56cm

₩ 2,700,000-5,500,000



039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영축산 통도사 극락암자 靈鷲山 通度寺 極樂庵子

2006년(병술)

종이에 수묵/ 액자

22.8x150.5cm

₩ 6,000,000-12,000,000

040

현초 이유태 玄艸 李惟台

태안泰安/ 1916-1999

동해효색 東海曉色

1982년(임술)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50x68.5cm

₩ 400,000-1,000,000



푸른 깃을 가지런히 하고 한 쌍이 나란히 깃들여 일어나니,
붉은 부리 마주하고 정답게 지저귀는 때로다.

綠衣整頓雙棲起紅嘴分明對語時



041

소정 변관식 小亭 卞寬植

초계 草溪 / 1899-1976

앵무 鸚鵡

1919년(기미)
비단에 수묵담채 / 액자
139x38.1cm

₩ 1,500,000-3,000,000



042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 商山 / 1892-1979

고사인물 故事人物

1960년(경자)
비단에 수묵담채 / 액자
132.2x36cm

₩ 800,000-2,000,000

043

목불 장운상 木佛 張雲祥

1926-1982

미인도 美人圖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63x45.3cm

₩ 700,000-1,500,000



044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 金海 / 1913-2001

장미 薔薇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29.7x25cm

₩ 500,000-1,300,000



045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매처학자 梅妻鶴子

1964년(갑진)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8x35.5cm

₩ 1,200,000-2,800,000



비에 젖은 솔숲 사이 바위는 윤택하고,
안개 걷히니 대숲 속 인가가 드러나네.
긴긴 낮에는 그림 붓을 바라보고,
고요한 산에서는 하늘의 이치를 깨닫네.

雨潤松間石 煙開竹裏家
日長看畫筆 山靜見天機



046

소림 조석진 小琳 趙錫晉

함안咸安, 응삼應三/ 1853-1920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0.4x37.8cm

₩ 4,000,000-8,000,000

047

묵로 이용우 墨鷺 李用雨

경주慶州, 창운蒼潤/ 1904-1952

고사인물도 6폭병풍 故事人物圖六幅屏風

비단에 수묵담채/ 병풍
51.2x26cmx6

₩ 4,000,000-9,000,000





048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전주全州/ 1897-1972

추경 秋景
1935년(을해)
종이에 수묵담채/ 부채
13.6x42.5cm

₩ 1,000,000-2,500,000

049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운외탑영 雲外塔影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3.6x35.1cm

₩ 600,000-1,400,000



050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매작 梅雀
1939년(기묘)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5.5x32cm

₩ 700,000-2,000,000





051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陽川/ 1907-1987

하경 夏景·추경 秋景 2점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0.4x32.7cmx2

₩ 1,500,000-3,000,000

萬竹叢深日未晡 寒江烟雨翠模糊
東風無限瀟湘意 卻倚篷窗聽鷓鴣

대숲은 겹겹이 깊고 아직 해는 늦지 않았는데,
찬 강에는 안개비 내려 푸른빛이 희미하네.
동풍에 끝없이 소상의 정취가 일어나니,
배 창에 기대어 자고새 우는 소리를 듣네.

亂鴉翻影上枯枝 點綴荒寒見野祠
絕似首陽山下路 滿陂晴雪祭餘時

까마귀 떼 마른 가지 위로 어지러이 날아들고,
황량한 들녘에 사당 하나 점처럼 드러나네.
흡사 수양산 아래 길을 보는 듯한데,
맑게 갠 뒤 흰 눈 가득한 들은 제사를 마친 때로구나.



052

운보 김기창 雲甫 金基昶
김해金海/ 1913-2001

도원천리 桃源千里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5x51cm

₩ 1,000,000-2,500,000

053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매작 梅雀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9.2x45.7cm

₩ 600,000-1,400,000





054

산정 서세옥 山丁 徐世鉦

달성達城/ 1929-2020

닭싸움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9.3x39.5cm

₩ 1,000,000-2,500,000

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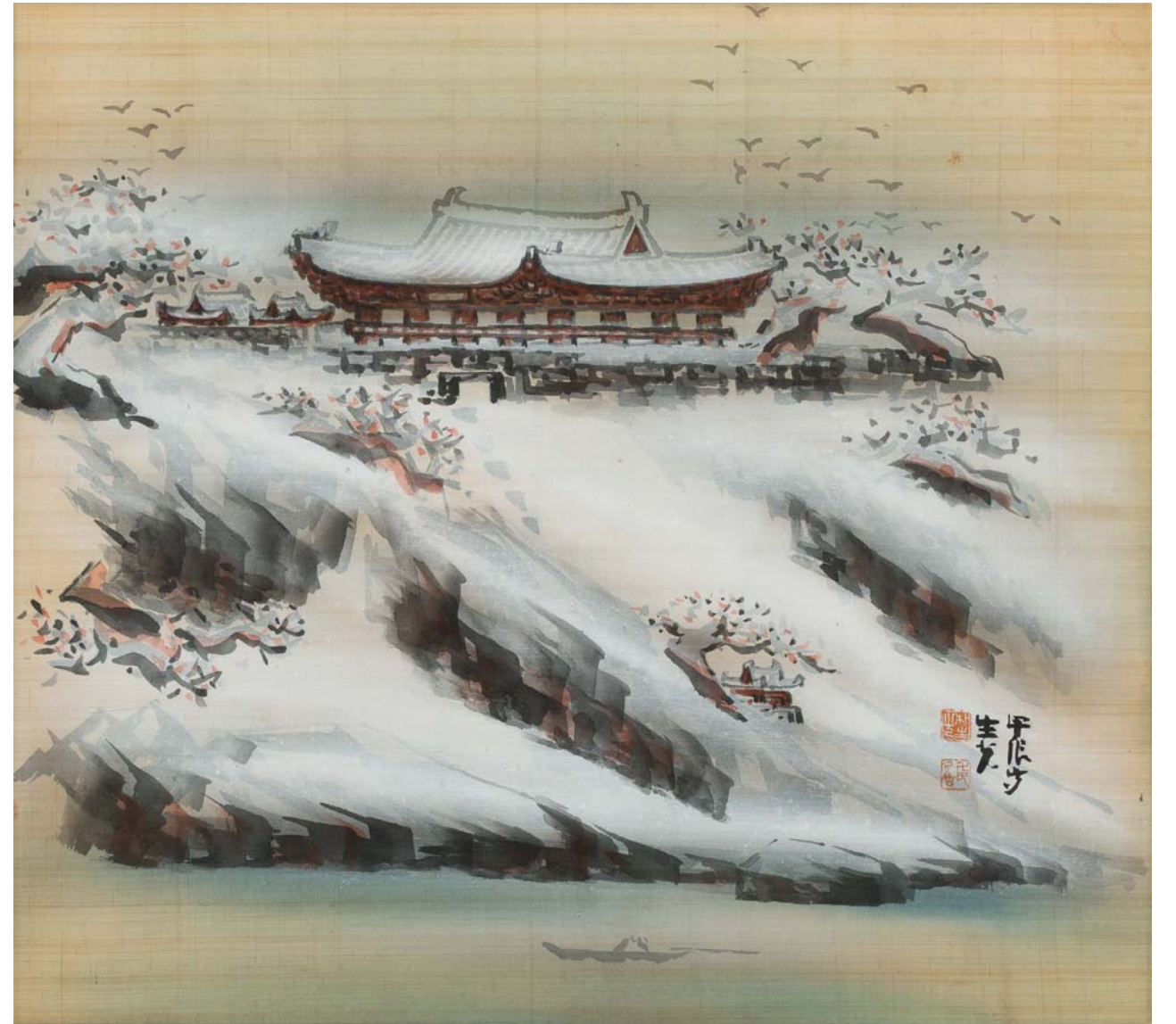
유산 민경갑 酉山 閔庚甲

여흥驪興/ 1933-2018

청공 淸供

1987년(정묘)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1x33cm

₩ 500,000-1,300,000



056

내고 박생광 乃古 朴生光

밀양密陽/ 1904-1985

축석루 矗石樓

1964년(갑진)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46x51cm

₩ 3,000,000-6,500,000



057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추경 秋景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64.2x65.8cm

₩ 2,000,000-4,500,000

058

향당 백윤문 香塘 白潤文

임천林川/ 1906-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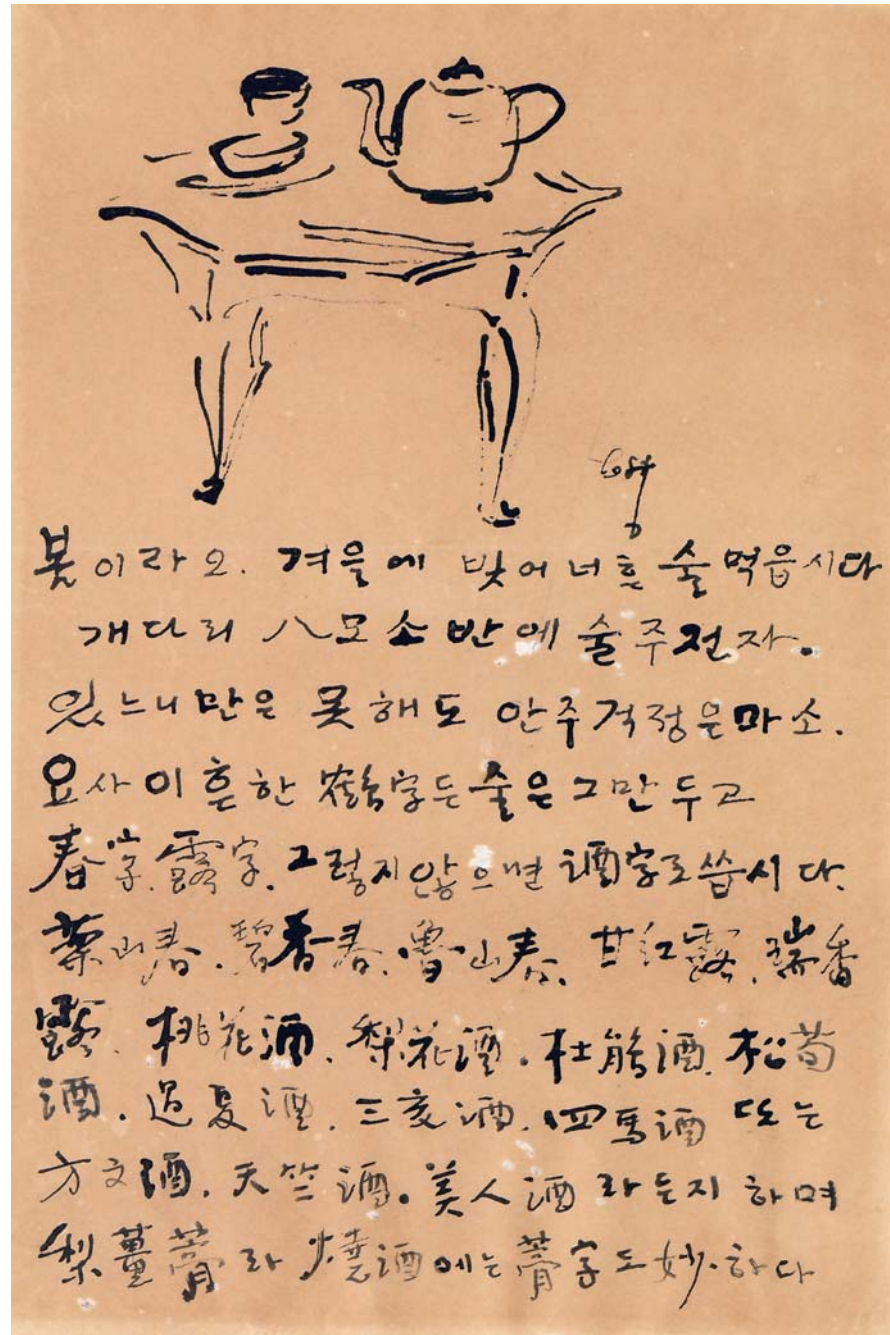
산수 山水

1940년(경진)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32.7x108.2cm

₩ 600,000-1,200,000



霜落兼葭水國寒 浪花雲影上漁竿
서리 내린 갈대숲에 물가는 차갑고,
물결꽃과 구름 그림자 낚싯대에 어리네.



059

구본웅 具本雄

능성綾城, 사영士英/ 1906-1952

봄을 기다리는 마음

종이에 펜/ 액자
18.8x12.3cm

₩ 2,500,000-5,000,000



작품수록처 | 「구본웅시화첩-허둔기」, 세음사, 1974, p.13



060

남농 허건 南農 許楨

양천陽川/ 1907-1987

추강귀범 秋江歸帆

종이에 수묵담채/ 가배접
30.2x116cm

₩ 1,000,000-2,500,000

061

제당 배렴 霽堂 裴濂

성산星山/ 1911-1968

서창청완 書窓淸玩

1964년(갑진)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0.7x126.5cm

₩ 400,000-1,000,000





062

정재 최우석 鼎齋 崔禹錫

1899-1964

해상군선도 海上群仙圖

1945년(을유)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19.5x61.5cm

₩ 1,500,000-6,000,000

출품작은 여러 신선이 파도 위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해상군선도海上群仙圖이다.

해상군선도는 신선의 무리를 그린 군선도 가운데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형으로 신선들이 서왕모西王母의 반도蟠桃會에 참석하기 위해 약수弱水를 건너는 이야기와 관련되며, 팔선八仙이 저마다의神通력을 발휘해 바다를 건너는 '팔선과해八仙過海'의 고사와도 연결된다. 실제 작품에는 팔선뿐 아니라 동방삭東方朔·수성노인壽星老人을 비롯한 여러 신선이 함께 등장하며, 인물의 수와 구성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면에는 일곱 명의 신선이 거센 파도 위에 한데 모여 물을 건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는 서왕모의 반도蟠桃를 훔쳐 먹었다는 고사로 알려진 동방삭이 커다란 복숭아를 들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호리병을 허리에 차고 쇠자팡이를 짚은 이철괴李鐵拐가 자리한다. 오른쪽에는 꽃과 영지로 보이는 식물을 담은 바구니를 멘 남채화龔采和와 긴 관악기를 든 한상자韓湘子가 배치되어 있다. 남채화와 한상자는 각각 꽃바구니와 피리를 대표적인 지물로 하는 팔선의 일원이다. 이와 함께 화면 상단에는 백색 향아리를 받쳐 든 신선이, 중앙에는 검은 얼굴에 풀잎을 엮은 옷을 입은 인물이 자리한다. 중앙 하단의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은 연잎 위의 거북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다. 이들 세 인물은 지물과 복식, 생김새만으로 특정 신선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향아리와 거북 등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소재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화면의 길상적 의미를 더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최우석은 고사와 신선 설화를 소재로 한 인물화를 다수 남겼으며, 특히 고사인물화에 능해 다양한 인물의 특징과 이야기를 화면에 능숙하게 풀어냈다. 출품작은 큰 화면에 일곱 신선을 밀집해 배치하고, 각기 다른 표정과 복식, 지물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인물의 개성을 드러냈다. 옷주름과 외곽은 짙고 힘 있는 선으로 구획하고, 청록과 주홍을 중심으로 채색하여 복식과 지물을 도드라지게 묘사했다. 얼굴과 수염, 손 등의 세부는 가는 필선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으며, 화면 하단을 가득 채운 굽이치는 파도와 인물들의 긴밀한 배치는 바다를 건너는 장면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화면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063

위창 오세창 葦滄 吳世昌

해주 海州, 중명 仲銘 / 1864-1953

난타 이기 蘭圯 李琦

1856-1935

구룡산인 김용진 九龍山人 金容鎭

안동 安東, 성구 聖九 / 1878-1968

성석 이응균 醒石 李應均

연안 延安, 중일 仲一 / 1883-?

관재 이도영 貫齋 李道榮

제주 濟州 / 1884-1933

춘곡 고희동 春谷 高羲東

순흥 順興 / 1886-1965

석정 안종원 石丁 安鍾元

1874-1951

탄월 김경원 灘月 金景源

1901-1967

동주 심인섭 東洲 沈寅燮

청송 靑松 / 1875-1939

우하 민형식 又荷 閔衡植

여흥 驪興, 공윤 公允 / 1875-1947

서화합작 10폭병풍 書畫合作十幅屏風

1930년(경오)

종이에 먹·수묵담채 / 병풍

110x30.6cmx10

₩ 4,000,000-10,000,000



064

석운 박기양 石雲 朴箕陽

반남潘南, 범오範五/ 1856-1932

괴석사군자 8폭병풍

怪石四君子八幅屏風

1921년

종이에 수묵/ 병풍

127.5x32cmx8

₩ 1,000,000-2,300,000

065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2.2x31.2cm

₩ 1,000,000-2,500,000



066

심향 박승무 深香 朴勝武

반남潘南/ 1893-1980

송신학성 松身鶴性

1953년(계사)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9.4x82.8cm

₩ 400,000-1,200,000





067

석연 양기훈 石然 楊基薰

중화中和, 치남痴南/ 1843~?

세한삼우 歲寒三友

종이에 수묵/ 족자
111.2x62.1cm

₩ 500,000-1,300,000

出處雖不同 氣味乃相似

나온 곳은 비록 다르나,
풍취는 서로 닮아 있네.



068

석촌 윤용구 石村 尹用求

해평海平, 주빈周賓/ 1853-1939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가배첩
26.5x16cm

₩ 300,000-700,000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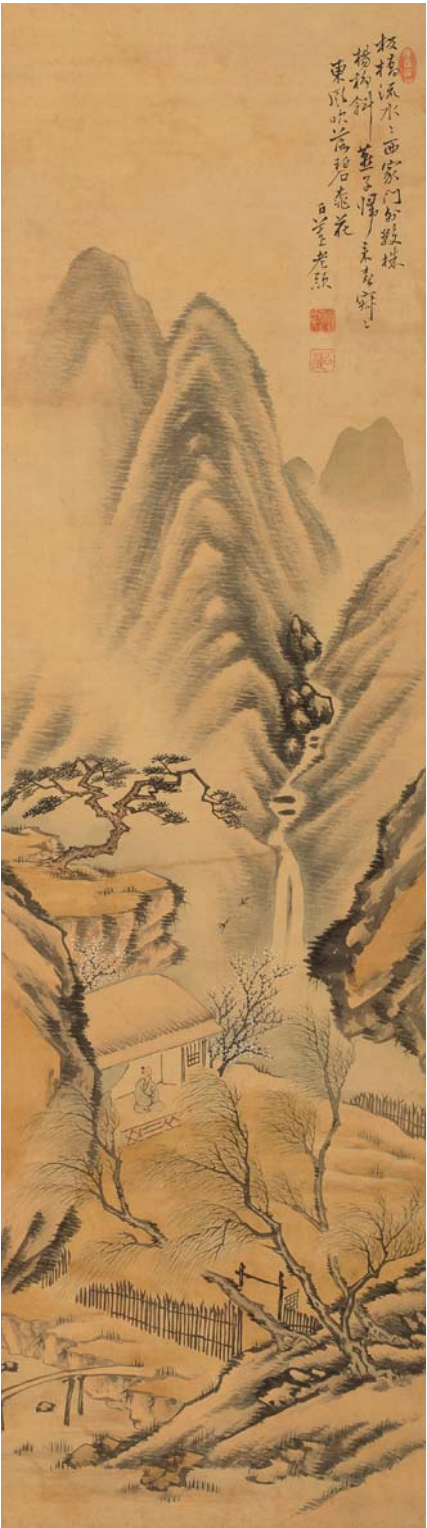
미산 황용하 美山 黃庸河

부평富平, 윤중允中/ 1899-미상

묵국 墨菊

비단에 수묵/ 족자
129.3x37.1cm

₩ 300,000-800,000



070

백련 지운영 白蓮 池雲英

충주忠州/ 1852-1935

산수 山水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130.6x36.5cm

₩ 600,000-1,400,000

071

낭곡 최석환 浪谷 崔奭煥
1808-?

산수 8폭 병풍 山水八幅屏風
비단에 수묵/ 병풍
67.5x34.7cmx8

₩ 8,000,000-16,000,000





072

일호 남계우 一濠 南啓宇

의령宜寧, 일소逸少/ 1811-1888

괴석호접 怪石胡蝶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07x30.5cm

₩ 8,000,000-16,000,000

꽃과 나비는 예로부터 즐겨 그려진 소재로, 나비는 장수를,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여 함께 그려지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는 화훼와 초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접도가 널리 유행하였다. 특히 일호 남계우는 나비 그림으로 이름을 떨쳐 '남나비'라 불렸으며,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섬세한 필치와 화려한 채색의 나비 그림을 남겼다.

출품작은 괴석과 모란을 배경으로 여러 종류의 나비가 화면 곳곳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남계우의 괴석화접도怪石花蝶圖이다. 화면 하단에는 괴석과 활짝 핀 모란을 배치하고, 그 위로 크기와 색채가 서로 다른 나비들을 흩어 놓아 생동감 있는 장면을 이루었다. 나비의 날개 무늬와 형태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청색·적색·황색 등 선명한 채색을 더해 각기 다른 나비의 특징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장수를 상징하는 나비와 부귀를 뜻하는 모란을 함께 그려 부귀장수의 길상적 의미가 담겨 있다.



073

표암 강세황 豹菴 姜世晃

진주晉州, 광지光之/ 1713-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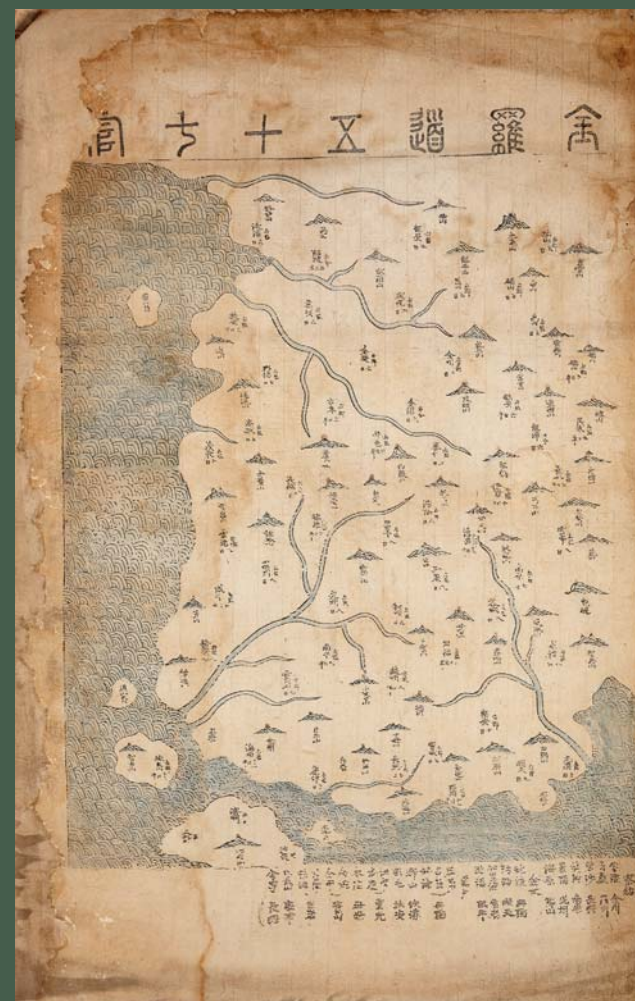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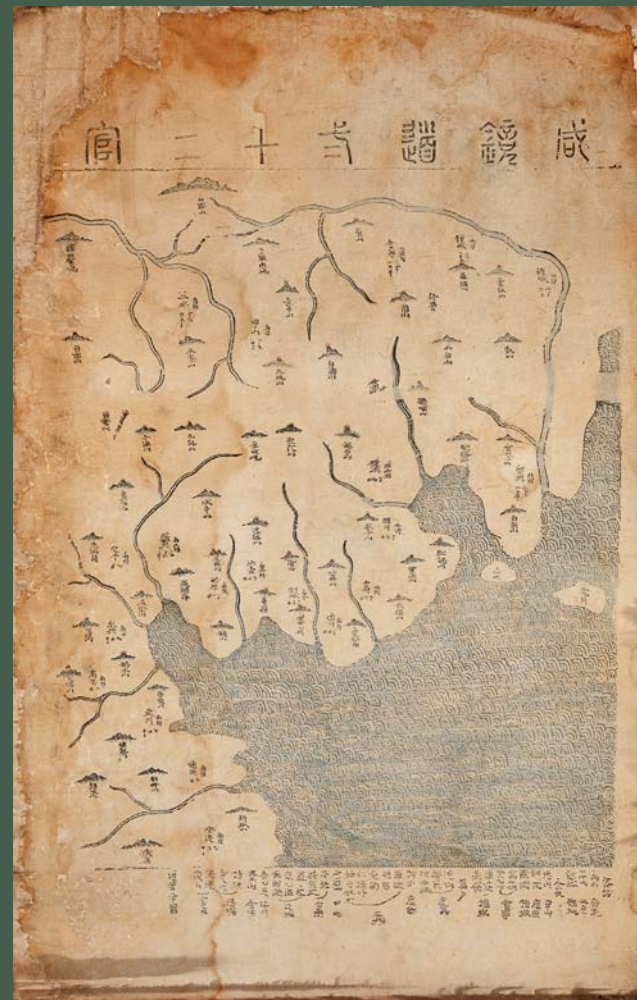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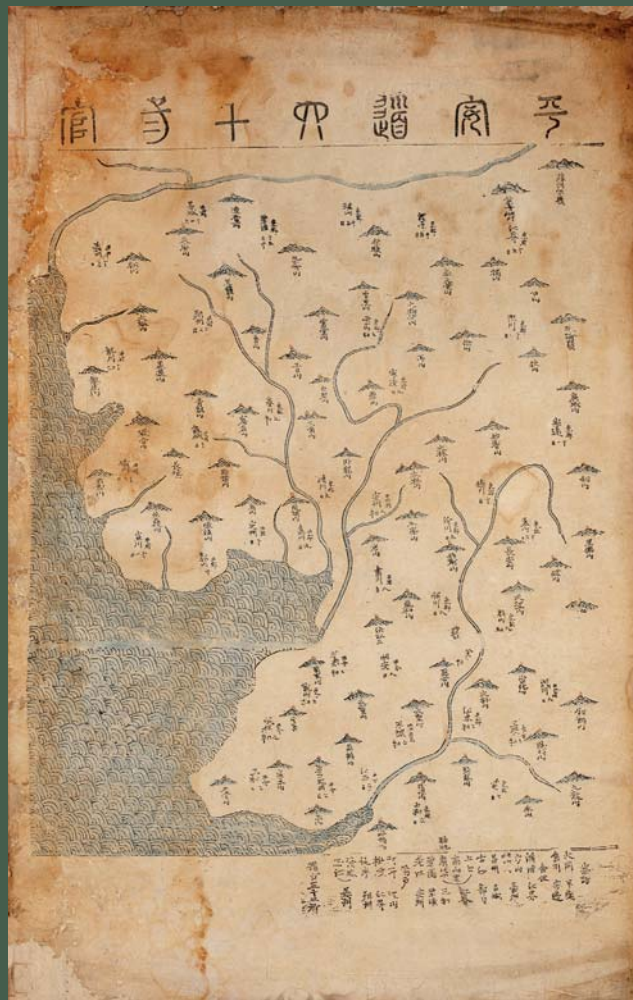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족자
30x46.7cm

₩ 8,000,000-16,000,000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이자 서화비평가로, 산수·화훼·사군자 등 여러 화목에 두루 능하였다. 특히 말년에는 난초와 대나무를 즐겨 그렸으며, 대상의 외형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보다 간결한 필묵을 통해 그 정취와 흥취를 드러내는 문인화적 표현을 보여주었다.

출품작은 화면을 가로질러 뻗어 나가는 대나무 줄기와 잎을 수묵으로 그린 묵죽도이다. 굽고 가는 줄기가 서로 교차하며 화면을 이루고, 맺잎은 짙고 열린 먹을 달리하여 빠르고 힘 있는 필선으로 표현하였다. 전경의 짙은 묵죽 뒤로 담묵의 대나무를 겹쳐 배치하여 공간감을 드러내는 한편, 화면 곳곳에 여백을 두어 간결하고 시원한 구성을 보여준다. 절제된 수묵과 경쾌한 필치로 대나무의 생동하는 기운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강세황 묵죽화의 문인화적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074

팔도지도 八道地圖

18세기
종이에 목판인쇄·담채/가병풍
103x65cmx8

₩ 20,000,000-45,000,000

출품작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도별지도, 이른바 ‘동람도東覽圖’를 바탕으로 도별도를 확대하여 독립된 형태로 제작한 동람도형 지도이다.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평안·함경의 조선 팔도를 각각 한 장씩 구성하였으며, 바다에 일정한 파도무늬를 반복하여 나타내는 등 동람도 계통의 특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도에는 부·목·군·현 등 주요 군현과 진산鎭山, 산맥과 하천을 표시하고, 군현명 곁에는 부사·군수·현령·현감 등 수령의 관직과 서울에서 각 고을까지의 거리 및 소요 일수 등 행정·지리 정보를 덧붙였다. 하단에는 찰방察訪·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管 등 교통과 변방 방어에 관계된 관직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별도의 주기로 정리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보다 한층 다양한 지역 정보를 담고 있다.

상단에는 각 도의 명칭과 군현 수를 ‘○○도 ○○관’의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출품작에는 경기 38관, 전라 57관, 황해 24관, 충청 54관, 강원 26관, 경상 69관, 함경 22관, 평안 42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은 각 도에 속한 부·목·군·현 등 군현의 수를 나타낸다. 동람도형 지도는 여러 차례 번각·전승되며 다양한 판본으로 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도 표현의 세부와 상단 제목의 서체, 군현 수의 표기 등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타났다.

이 지도는 동람도의 기본적인 도형을 계승하면서 행정·지리·교통·군사에 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다양하게 제작된 동람도형 도별지도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075

여도요람 與圖要覽

종이에 먹·수묵담채/ 첩
37x21.3cm(9장)

₩ 6,000,000-13,000,000

출품작은 '여도요람 與圖要覽'이라는 표제가 있는 조선 전도와 각 도의 지도를 한데 모아 엮은 채색 필사 지도첩이다. 조선총도朝鮮總圖를 시작으로 경기·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순으로 모두 아홉 장의 지도를 수록하였다. 각 지도는 넓은 종이에 그린 뒤 여러 겹으로 접어 한 첩 안에 수납하도록 제작하여, 펼쳤을 때에는 각 지역의 지리 정보를 비교적 큰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총도'에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형세와 주요 군현을 나타내었으며, 각 도별 지도에는 산천과 해안선, 섬, 군현과 도로망 등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산지는 연속된 산봉우리의 형태로 표현하고, 하천과 바다는 청색, 주요 도로는 적색 계열의 선으로 구분하였으며, 군현은 원형의 기호와 함께 표시하였다. 곳곳에는 산명·하천명·고을명 등 지리 정보를 세필로 적어 넣었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화면 전반에 뚜렷하게 나타내어 행정 구역과 산천의 형세뿐 아니라 지역 간의 연결 관계와 교통망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부충청도京畿附忠淸道' 우측 하단에는 백리척百里尺을 두어 지도상 거리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선총도' 우측에는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전하는 발문을 옮겨 적었다.

출품작은 각 도를 독립된 대형 지도에 상세하게 그린 뒤 접어 한 첩에 수납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의 형세를 보여주는 총도와 산천·군현·도로 등을 세밀하게 나타낸 도별 지도를 함께 갖추어, 조선시대의 지리 인식과 행정·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076

천문성좌도 天文星座圖·
삼한이십팔숙도 三垣二十八宿圖·
천문지 天文誌

종이에 먹·수묵담채/ 첩·책
31.5x28.5cm, 34x20.5cm, 32.5x21.3cm

₩ 18,000,000-3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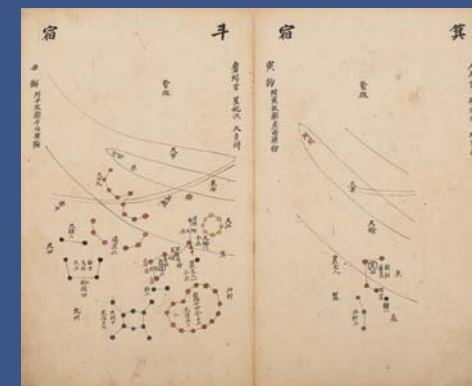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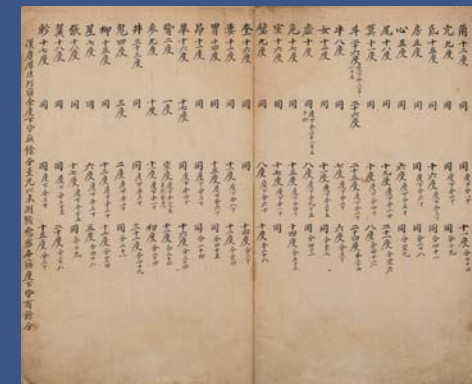
출품작은 『천문성좌도 天文星座圖』, 『삼원이십팔숙도 三垣二十八宿圖』와 『천문지 天文誌』로 구성된 천문 관련 자료 일괄이다.

『천문성좌도』는 총 28면으로 이루어진 채색 천문도첩으로, 성좌의 배열뿐 아니라 천구의 구조와 천체의 운행,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 천체의 위치와 관측에 관한 내용을 여러 도식으로 정리하였다. 원형의 천구를 기본으로 방위와 도수를 세분하고, 별과 별자리를 점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하였으며, 적색·황색·청색·먹색 등을 구분하여 각종 천문 요소와 운행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일부 면에는 춘·하·추·동에 따른 성좌의 배치와 절기별 천체의 위치를 정리하였고, 다른 면에는 천극과 천구상의 여러 기준선 및 천체의 운동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명하였다.

『삼원이십팔숙도』는 동아시아 전통 천문학의 기본적인 천구 구분 체계인 삼원三垣과 이십팔숙二十八宿를 36면에 걸쳐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삼원은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천시원天市垣의 세 영역을 가리키며, 이십팔숙은 하늘을 스물여덟 개의 별자리 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별자리를 황색·적색·흑색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각 영역의 명칭과 별의 배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함께 전하는 『천문지』는 총 137면에 이르는 목서본으로, 천문에 관한 여러 내용을 문자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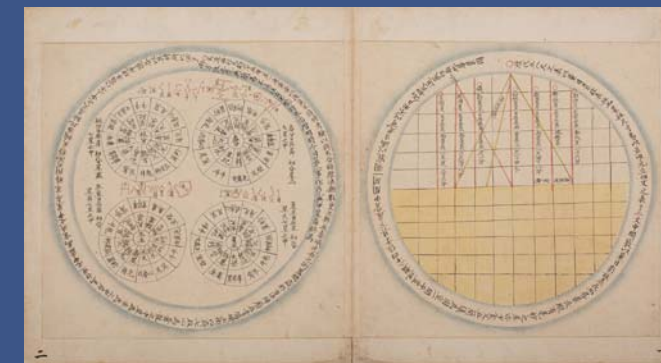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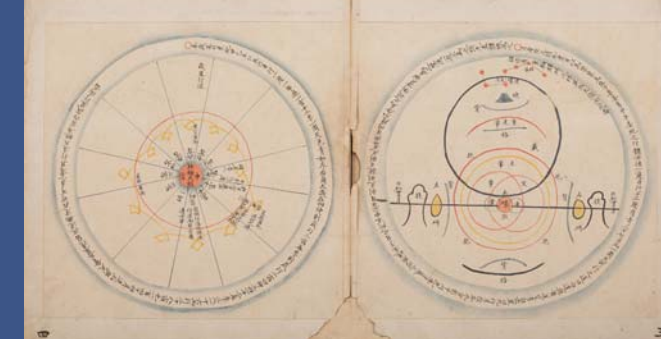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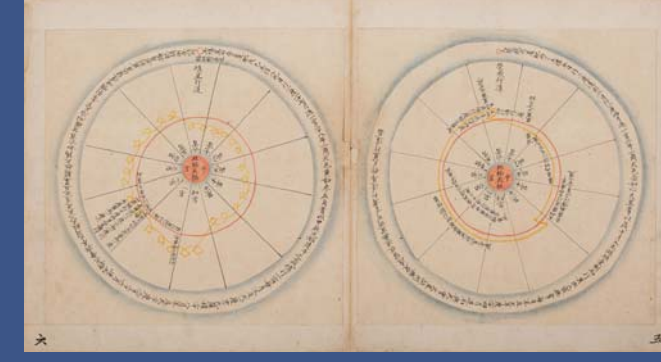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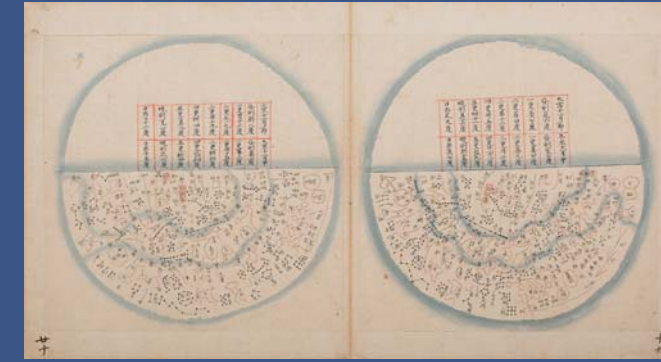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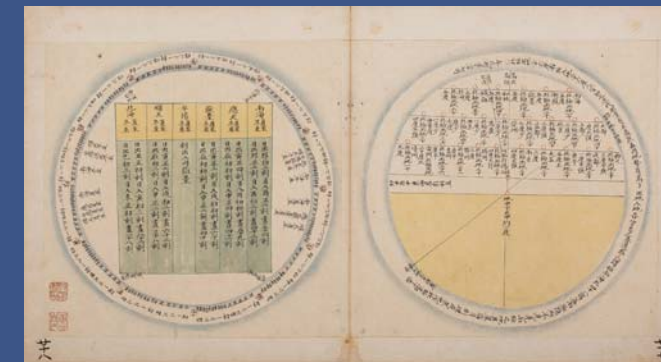
삼원이십팔숙도 三垣二十八宿圖



천문지 天文誌



천문성좌도 天文星座圖



성학십도 12폭병풍 聖學十圖十二幅屏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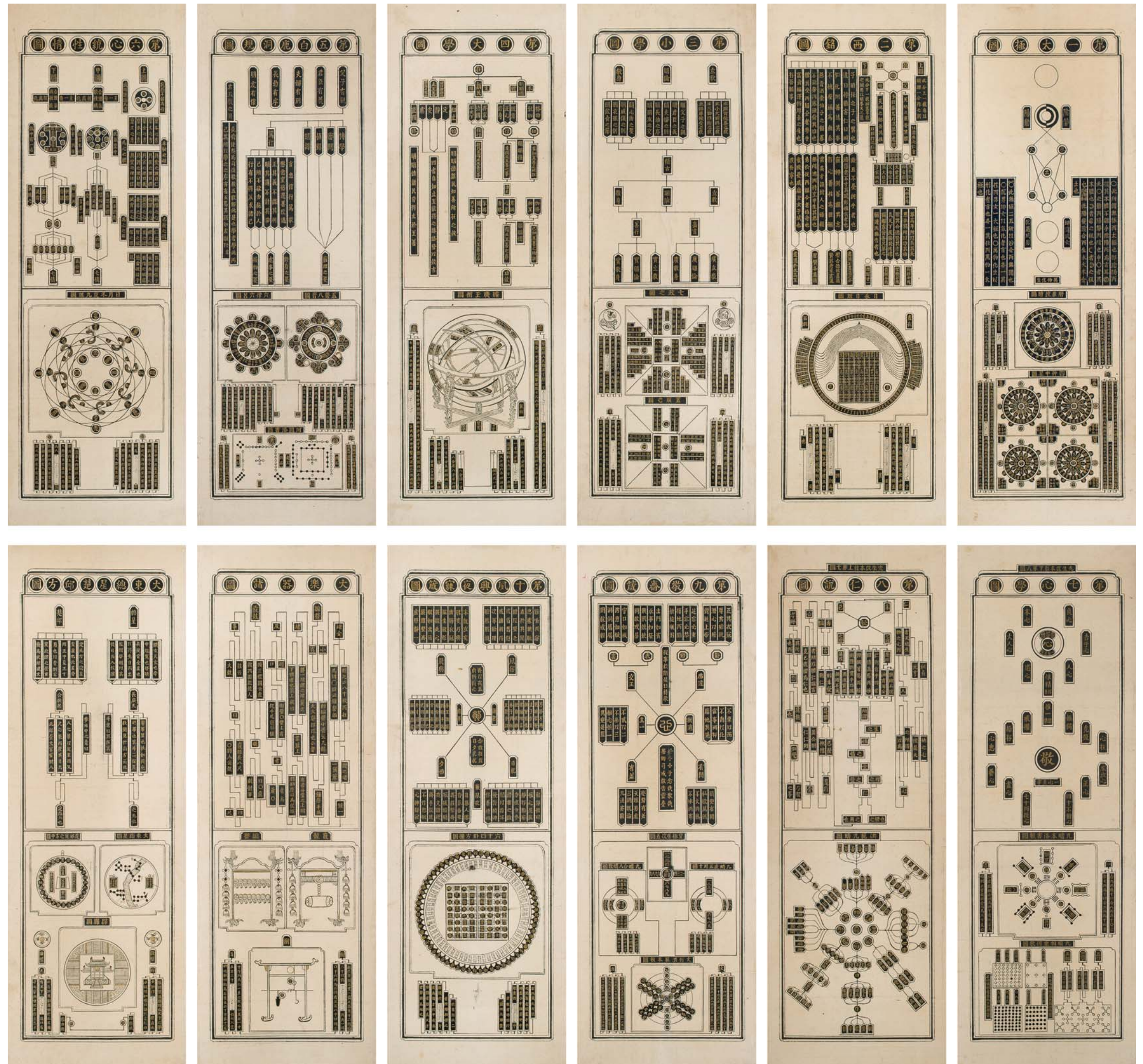
비단에 먹, 금니/ 병풍
100.7x34.3cmx12

₩ 2,000,000-5,000,000

출품작은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열 폭의 도설로 정리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중심으로 구성된 12폭 병풍이다. 성학십도는 태극도太極圖를 비롯해 심성론과 수양론에 관한 내용을 도식과 글로 정리한 것으로, 조선시대 유학의 학습과 자기 수양을 위한 중요한 도설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 병풍에는 성학십도의 열 폭에 두 폭의 도설이 추가되어 있다. 한 폭에는 『시경詩經』의 내용과 관련된 성수星宿와 방위, 궁실의 배치 등을 '대동총성도大東總星圖', '초구정지방중도楚丘定之方中圖', '벽옹도辟雍圖' 등의 도식으로 정리하였으며, 다른 한 폭에는 고대 예악禮樂에 사용된 여러 악기의 명칭과 형태, 제도를 그림과 도표로 나타내었다.

성리학적 수양론을 중심으로 경전과 천문, 예악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성하여 유학의 여러 분야를 한 벌의 병풍 안에 폭넓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078

금강산인 김진우 金剛山人 金振宇

강릉江陵, 군협君協/ 1883-1950

묵죽 8폭병풍 墨竹八幅屏風

1945년(을유)

종이에 수묵/ 병풍

131x32.8cmx8

₩ 3,500,000-8,000,000



079

청계 정종여 靑谿 鄭鍾汝

초계草溪/ 1914-1984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40.6x103.8cm

₩ 2,500,000-5,500,000

080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1892-1979

석류와 새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36x51.5cm

₩ 600,000-1,400,000

半含笑裏清冰齒 忽綻吟邊古錦囊

웃음 머금은 입가엔 맑고 흰 이가 살짝 드러나고,
문득 시흥이 일자 옛 비단 주머니가 열리네.



081

풍곡 성재휴 豊谷 成在休

창녕昌寧/ 1915-1996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26x32cmx10

₩ 3,500,000-8,000,000





082

남농 허건 南農 許健

양천陽川/ 1907-1987

산수일지병풍 山水一枝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93.4x312cm

₩ 3,000,000-6,000,000



083

석촌 윤용구 石村 尹用求

해평海平, 주빈周賓/ 1853-1939

산수 8폭병풍 山水八幅屏風

종이에 수묵/ 병풍
130.7x32cmx8

₩ 4,000,000-10,000,000

084

석운 권동수 石雲 權東壽

안동安東, 치영敦永/ 1842-?

괴석묵란 怪石墨蘭

1908년(무신)
비단에 수묵/ 족자
108.5x42.4cm

₩ 400,000-1,000,000

石不能言花無語
傳散空谷雨兼風

돌도 꽃도 말이 없건만,
빈 골짜기에 그옥이 퍼지니
비바람도 함께하네.



085

운룡도 雲龍圖

종이에 수묵채색/ 액자
127x92.2cm

₩ 25,000,000-60,000,000

출품작은 화면 가득 구름 사이를 휘감아 도는 한 마리의 용을 그린 운룡도이다. 네 귀퉁이에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 방향으로 '탁수용도瀾水龍圖'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붉은 산호 모양의 형상 사이로 11갈래의 물줄기가 묘사되어 있다.

용은 몸통을 크게 굽혀 화면 전체를 휘감듯 배치하고, 머리를 위로 치켜들어 하늘을 향해 오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여 화면에 강한 상승감과 역동성을 더한다. 둥글게 돌출된 눈과 크게 벌린 입, 길게 뻗은 수염과 짧은 용의 신령스러운 면모를 더욱 강조한다. 붉은색과 주황색을 중심으로 반복해 그린 비늘에는 청색의 등지느러미를 덧붙였고, 갈기와 털은 녹색의 가는 선을 촘촘히 겹쳐 표현하였다. 몸통은 구름 사이로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화면의 상하좌우를 연결하고, 굽이치는 형상과 강한 색채 대비가 화면 전체에 생동감 있는 움직임 만들어나간다.

용은 네 개의 발톱을 가진 사조룡四爪龍으로 표현되었으며, 여러 색을 조합한 둥근 여의주를 쥐고 있다. 일반적인 운룡도에서 여의주가 불꽃에 싸인 구슬로 표현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별 모양과 꽃잎 모양이 결합된 문양처럼 도안화되어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화면을 뺄곡하게 채운 구름은 먹의 농담으로 번지듯 묘사하기보다 나선형의 윤곽선을 반복하여 문양처럼 표현하였다. 백색과 담홍색, 옅은 녹색과 황색 계열을 겹쳐 채색하여 여러 빛깔이 어우러진 채운彩雲을 연상시키며, 반복되는 구름무늬와 부드러운 바람이 용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전통적으로 채운은 길상과 서응瑞應을 상징하는 구름으로 여겨졌다.

용은 구름을 타고 오르며 비를 관장하는 존재로 여겨져 풍우의 조화와 만물의 생장을 상징하였다. 또한 제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동시에 민간에서는 제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길상적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출품작은 이러한 전통적인 상징성을 바탕으로 용과 구름, 여의주를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운룡도로, 반복적인 구름무늬와 선명한 주황·녹색·청색의 조화, 세부를 촘촘하게 채워 넣은 표현에서 민간 채색화 특유의 장식성과 조형 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086

백선도 百扇圖 2점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79x35cmx2

₩ 3,000,000-6,000,000



087

석파 이하응 石坡 李昰應

전주全州, 시백時伯/ 1820-1898

석란 石蘭 대련

1883년
종이에 수묵/ 액자
135x33cmx2

₩ 8,000,000-20,000,000

출품작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로 피랍되어 천진天津의 보정부保定府에 머물 때 제작된 것이다. 보정부에서의 3년 2개월간의 유폐幽閉생활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래가 불투명한 억류생활로 병고에 시달리는 등 큰 시련을 맞이하며 석파의 묵란화풍에 있어서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대련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단 중앙에 농묵과 담묵을 적절히 사용하여 날카롭게 표현한 괴석을 중심으로 상하에 난을 배치했다. 난엽은 위아래로 자신있게 뻗어나 가고 꽃은 담묵으로 은은하게 표현하여 농담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의 배관기가 남아있다.





088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八幅屏風

종이에 먹/ 병풍
114.7x36.8cm

₩ 23,000,000-50,000,000

문자도는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孝·제禮·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여덟 글자를 회화적으로 풀어낸 그림이다. 각 글자마다 그 뜻과 관련된 고사나 상징물을 함께 그려 넣었으며, 주로 8폭 병풍으로 제작되어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동시에 유교적 덕목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자의 획 안에 고사와 상징물을 넣거나, 새와 꽃·나무·물고기 등의 형상을 자획과 결합하는 등 문자와 그림을 한 화면 안에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출품작은 여덟 글자를 각각 한 폭의 화면 가득 크게 배치하고 굵은 먹의 자획 안에 소나무와 대나무, 매화나무, 연꽃과 포도를 비롯하여 잉어와 다람쥐, 여러 종류의 새, 용과 누각 등을 그려 넣었다. 개별 소재

들은 자획의 굴곡과 방향에 맞추어 서로 이어지며 하나의 문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각 글자가 세로로 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여덟 폭을 펼쳤을 때 굵은 문자의 형태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전체적으로 먹의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제한된 담채를 더하여 표현하였다. 짙은 먹으로 표현한 자획과 밝게 남긴 내부 형상이 뚜렷한 명도 차이를 이루어 문자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자획 내부의 여러 소재는 바탕색에 가깝게 비워 두거나 옅은 채색을 더해 표현함으로써, 문자 전체의 형태와 그 안에 담긴 세부 형상이 함께 드러나도록 하였다.

자획 안쪽에는 여러 도상을 촘촘하게 구성하였는데 나무와 꽃, 새와 물고기, 건물 등의 형상에 가는 필선으로 소나무의 줄기와 솔잎, 대나무의 마디와 잎, 포도의 넝쿨과 잎맥, 새의 깃털과 잉어·용의 비늘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커다란 글자의 형태가 먼저 드러나고, 가까이에서는 자획을 따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형상과 세부적인 필선을 살펴볼 수 있다. 출품작은 문자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다양한 형상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문자도의 문자성과 회화적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된 모습을 잘 보여준다.



089

몽인 정학교 夢人 丁學敎

나주羅州, 화경化境/ 1832-1914

괴석묵죽 怪石墨竹·묵란 墨蘭 2점

종이에 수묵/ 액자
110.2x36.4cmx2

₩ 5,000,000-10,000,000



090

금재 김득신 兢齋 金得臣

개성開城, 현보賢輔/ 1754-1822

응시 鷹視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21.2x32.2cm

₩ 13,000,000-26,000,000



금재 김득신兢齋 金得臣은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로, 풍속화와 인물화뿐 아니라 산수·영모 등 여러 화목에 능하였다.

출품작은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의 매가 화면 왼쪽 아래를 예리하게 응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넓은 여백 속에 매의 시선과 자세를 부각하여 긴장감 있는 순간을 담아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굵은 가지는 왼쪽 위로 길게 뻗어나가며 화면에 사선의 흐름을 만든다. 넓은 여백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지의 움직임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매로 이끌어 화면의 집중도를 높인다. 매는 몸을 낮추고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치켜뜬 눈과 굵은 부리, 가지를 움켜쥔 발을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몸통과 날개는 먹의 농담을 달리하여 깃털의 질감을 나타내었고, 가지와 성긴 잎은 간략한 필선과 담채로 처리하였다.



091

미산 허형 米山 許瀞

양천陽川/ 1862-1938

사계산수 10폭병풍 四季山水十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102.3x33.5cmx10

₩ 1,500,000-3,500,000



092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묵국 墨菊·시고 詩稿

종이에 수묵·액/ 액자
26x67.5cm

₩ 2,500,000-5,500,000

千載白衣酒 一生靑女霜

천년토록 백의의 술을 빗 삼고,
한평생 청녀의 서리를 맞았네.

鶯襟衣裳錢樣裁 冷霜涼露濃穠埃
比他紅紫開差晚 時節來時畢竟開

피꼬리빛 옷자락 동전 모양으로 지었고,
찬 서리 서늘한 이슬 가을 속에 맞이하네.
붉고 자줏빛 못꽃보다 피는 때 늦다 해도,
제철이 돌아오면 끝내 꽃을 피우네.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괴석묵죽 8폭병풍 怪石墨竹八幅屏風
종이에 수묵/ 병풍
84x35.7cmx8

₩ 6,000,000-13,000,000

사군자는 조선 후기 문인화의 주요 화목으로 널리 그려졌으며, 그중 묵죽도는 먹의 농담과 필선만으로 대나무의 형태와 기운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나무는 곧게 뻗은 줄기와 사방으로 펼쳐진 잎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이루었으며, 괴석과 함께 그려져 석죽도石竹圖의 형식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출품작은 소치 허련이 대나무와 괴석을 함께 그린 8폭 병풍이다. 각 폭의 하단에 괴석을 두고 그 사이로 대나무가 뻗어 오르는 구성을 반복하였으며, 줄기와 댓잎의 방향을 달리하여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대나무는 농묵과 담묵을 번갈아 사용해 앞뒤의 층위를 나타내고, 괴석은 빠르고 거친 붓질과 먹의 농담으로 표현하였다. 간결한 필선과 소략한 형태로 대나무와 괴석을 그려내어 화면 전체에 소박하면서도 고졸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094

문자도 8폭병풍 文字圖八幅屏風
군자화목도 6폭병풍 君子花木圖六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수묵/ 병풍
61.8x37.4cmx8
61.8x37.4cmx6

₩ 2,000,000-4,000,000

095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1891-1977

묵죽 墨竹
종이에 수묵/ 액자
22.8x6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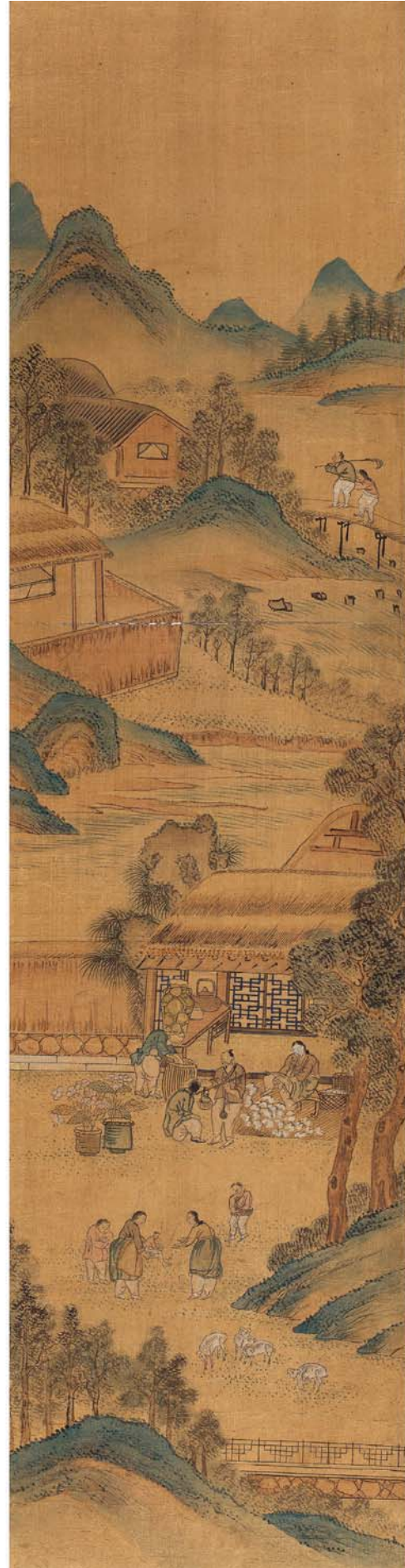
₩ 500,000-1,200,000

玉立蕭蕭竹數竿 風枝露葉帶清寒
去年湖曲人家見 底事移來紙上看

옥처럼 곧게 선 대나무 몇 줄기,
바람 이는 가지와 이슬 맺힌 잎에 청한한 기운 감도네.
지난해 호숫가 굽이 인가에서 보았거늘,
어인 일로 종이 위에 옮겨와 다시 보는가.



Lot.096 경직도 耕織圖 6폭



경직도 耕織圖 6폭

비단에 수묵담채/ 액자
122.3x31cmx6

₩ 20,000,000-50,000,000

경직도耕織圖는 농사짓는 일인 '경耕'과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직織'의 장면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

농사와 직조는 백성의 생활을 이루는 근본적인 생산 활동으로 여겨졌으며, 경직도는 농사를 짓는 농부와 누에를 치는 여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스스로 근검절약하고 바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감계적鑑戒의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경직도의 전통적인 주제에 산수와 농가의 풍경, 세시풍속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더해지면서 점차 풍속화적인 면모를 띤 그림으로 변화하였다.

출품작은 산촌을 배경으로 농사를 짓고 옷감을 만드는 여러 모습을 그린 6폭의 경직도이다. 산과 언덕, 물길 사이로 초가와 기와집을 배치하고, 논밭과 마당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농가의 다양한 생산 활동을 세밀하게 담았다. 벼를 베고 벼단을 옮기거나 수확한 곡식을 털고 정선精選하는 모습이 보이며, 한편으로는 섬유의 원료를 손질하고 실을 정리하거나 날실을 길게 늘어 베틀에 걸 준비를 하는 장면, 베틀에 앉아 천을 짜는 모습 등이 이어진다. 여기에 벼단으로 초가지붕을 손질하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농부, 집 안팎에서 작업하는 여성들,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곳곳에 배치하여 농촌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실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베틀에서 천을 짜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직조와 관련된 여러 과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배경의 산수는 청록과 담채를 중심으로 처리하고, 인물과 건물, 농기구 등은 가는 필선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높은 산과 굽이진 언덕, 물길을 따라 농가와 인물을 층층이 배치하여 좁고 긴 화면 안에서도 깊이 있는 공간감을 이루었다. 경직도의 전통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농촌의 다양한 생산 활동과 일상생활을 함께 담아낸 작품으로, 농가의 생활 풍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097

문자동자도 文字童子圖

종이에 수묵채색/ 액자
49x33cm

₩ 1,200,000-2,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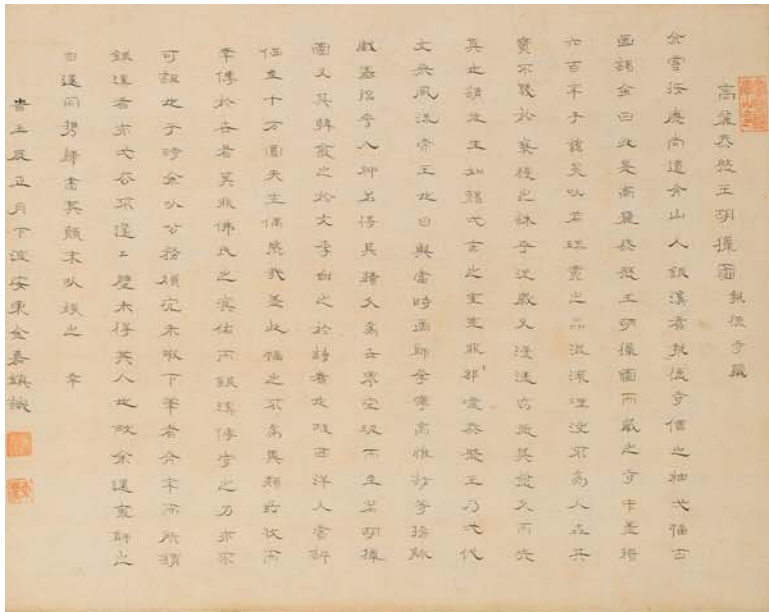
098

어해 魚蟹 2점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31x42.5cmx2

₩ 1,500,000-3,500,000





099

傳 공민왕 호렵도 恭愍王 胡獵圖：
동농 김가진 東農 金嘉鎭 배관

종이에 수묵담채, 비단에 먹/ 족자
70.5x37.3cm, 29.9x37.3cm

₩ 2,000,000-4,500,000

출품작은 고려 공민왕恭愍王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호렵도胡獵圖이다. 화면 상부에는 동농 김가진東農 金嘉鎭이 이 그림의 전래 경위와 가치를 기록한 글이 함께 남아 있다. 글에는 보덕사報德寺에 전해진 이 그림이 공민왕의 호렵도이며 오랜 세월 사찰에 보관되어 왔다는 내용과, 세월이 지나 그림이 점차 흐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에 관한 글을 청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어 김가진은 공민왕을 문채文采와 풍류를 갖춘 제왕으로 평하고, 당시 화사畫師 이녕李寧·고유방高惟訪 등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고 적었다. 특히 호렵도의 가치를 문장에 있어서의 한유韓愈, 시에 있어서의 이백李白에 비유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서양인이 그 가치를 십만원十萬圓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다는 내용도 전한다. 후반부에는 이 그림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불가와 은계銀溪의 역할을 언급하고, 김가진이 훗날 그 전말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호렵도와 함께 작품의 전래 경위와 당대의 평가를 전하는 김가진의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이 그림이 후대에 어떠한 작품으로 인식되고 전승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100

서암 김유성 西巖 金有聲

김해金海, 증옥仲玉/ 1725-?

행려도 行旅圖

종이에 수묵/ 족자
86x27.2cm

₩ 15,000,000-30,000,000

서암 김유성西巖 金有聲은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으로,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 참여하였다. 통신사행 동안 일본의 문인·화가들과 교유하며 여러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 화원의 회화적 기량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출품작은 잎이 길게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에서 말을 탄 두 인물이 길 위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한 쪽 인물은 시중을 거느리고 있으며, 맞은편의 인물과 서로 말을 멈추고 대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화면 상단에서 길게 드리운 버드나무는 간결한 필선으로 가지와 잎을 나타내면서도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선의 흐름을 살려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인물과 말은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유연한 필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화면 대부분을 여백으로 남기고 인물을 화면 하단에 집중시켜 넓고 한적한 공간감과 서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101

감모여재도 感慕如在圖

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50x214.4cm

₩ 10,000,000-30,000,000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는 사당이 없거나 외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방紙榜과 함께 조상을 모시기 위해 사용한 그림으로, 사당도祠堂圖라고도 한다. '감모感慕'는 조상을 느끼고 사모한다는 뜻이며, '여재如在'는 마치 앞에 계신 듯하다는 의미로, 제향의 자리에서 조상의 존재를 기리고 추모하는 뜻을 담고 있다. 대개 사당이나 제단을 중심으로 화훼와 수목 등 길상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함께 그렸다.

출품작은 화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중앙에는 기와지붕을 갖춘 사당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좌우에 화병에 꽂은 국화와 모란을 두었으며, 양쪽의 독립된 화면에는 각각 우측에는 소나무를, 좌측에는 오동나무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구성을 이루었다.

화면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각각 길상적 의미를 지닌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는 장수와 절개를 상징하고, 늦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국화는 장수와 고결함을 뜻한다. 모란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며, 오동나무는 봉황이 깃드는 상서로운 나무로 여겨져 태평과 길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소재들은 조상을 추모하는 제례적 의미와 함께 자손의 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를 더한다.

전체적으로 가는 먹선을 중심으로 얇은 채색을 더한 담채로 그리고 사당의 지붕과 공포拱包, 문과 난간 등의 건축 요소를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화병의 문양, 국화와 모란의 꽃잎과 잎맥 또한 세필로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절제된 채색과 치밀한 선묘가 어우러져 제례화로서의 단정한 분위기와 장식적인 면모를 함께 보여준다.

책거리 8폭병풍
冊巨里八幅屏風종이에 수묵담채/ 병풍
73.8x40.1cmx8

₩ 8,000,000-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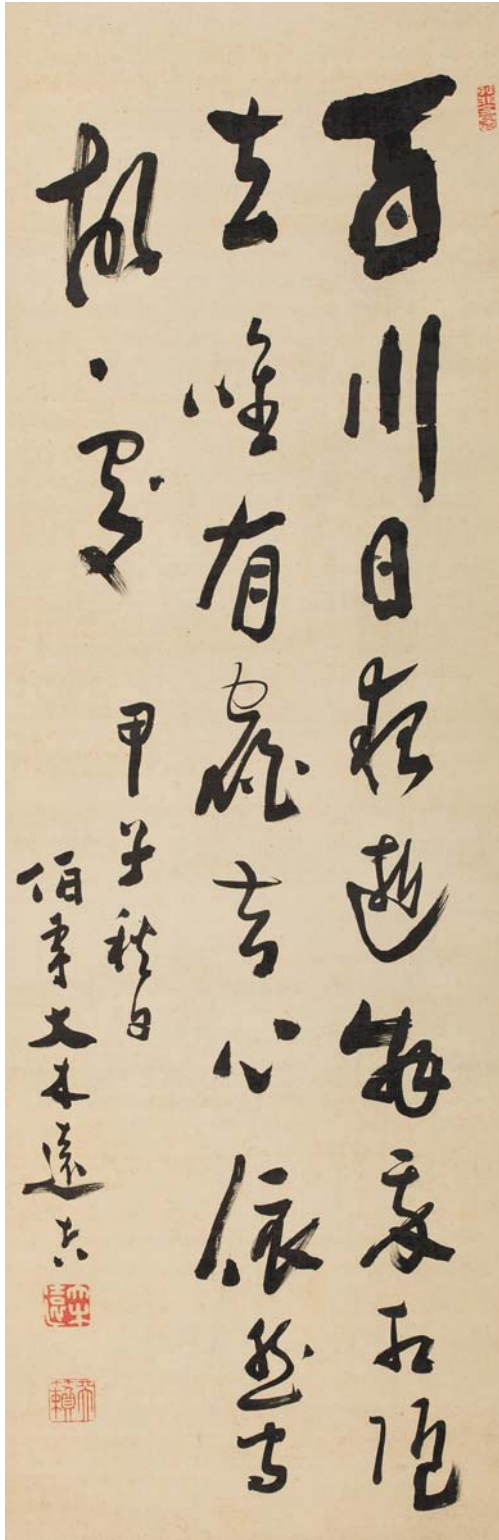


103

백련 지운영 白蓮 池雲英
충주忠州/ 1852-1935

산수 山水
1925년(을축)
비단에 수묵담채/ 족자
126.5x41.9cm

₩ 1,000,000-2,500,000



오키 엔키치 大木遠吉
1871-1926

시고 詩稿
1924년(갑자)
비단에 먹/ 족자
129.9x42.1cm



104

소치 허련 小癡 許鍊
양천陽川, 정일精一/ 1808-1893

괴석모란 怪石牡丹·매화 梅花 2점
1884년(갑신)
종이에 수묵/ 액자
128x33.8cmx2

₩ 1,200,000-2,500,000



玉階宜有此花開 金鼎調香宰相材

옥계에는 마땅히 이 꽃이 피어나고,
금술에 향을 조화롭게 할 이는 재상의 재목이로다.

老枝繆屈石嶙峋 雪意花光澹入神

늙은 가지 굽이쳐 우뚝한 바위에 기대고,
눈빛 같은 꽃빛은 담박하여 신묘경에 들었네.



105

소산 박대성 小山 朴大成
1945-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 액자
28x47cm

₩ 1,200,000-2,500,000



106

어문 황철 魚門 黃鐵
창원昌原, 아조冶祖/ 1864-1930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 족자
135.5x33cm

₩ 400,000-1,000,000



107

백송 지창한 白松 池昌翰
충주忠州/ 1851-1921

게 蟹
종이에 수묵/ 족자
131.4x40.8cm

₩ 600,000-1,400,00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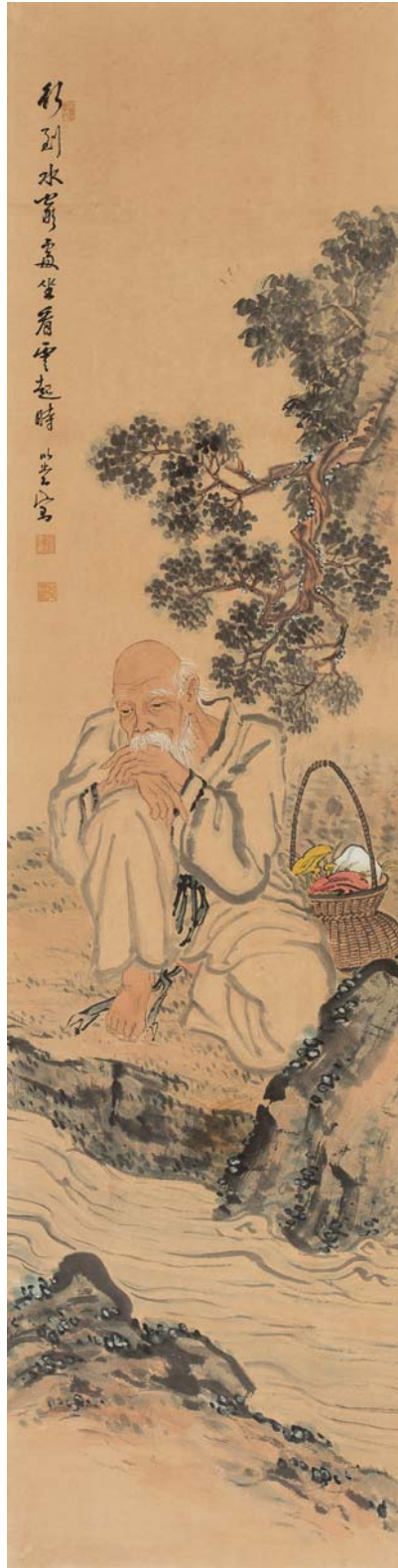
향당 백윤문 香塘 白潤文

임천(林川) / 1906-1979

기명절지 器皿折枝

종이에 수묵담채 / 족자
130x32.6cm

₩ 300,000-800,000



109

이당 김은호 以堂 金殷鎬

상산(商山) / 1892-1979

수궁운기 水窮雲起

종이에 수묵담채 / 액자
135x34cm

₩ 1,000,000-2,500,000

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가다가 물이 다하는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때를 바라보네.

110

의재 허백련 毅齋 許百鍊

양천(陽川) / 1891-1977

산수 山水

종이에 수묵담채 / 족자
136.5x34.5cm

₩ 800,000-2,300,000

靑山歷歷樹重重 寺在雲深第幾峰
比屋人家西崦下 夕陽長聽講時鐘

청산은 또렷하고 나무는 겹겹인데,
가람은 구름 깊은 곳 몇 번째 봉우리에 있다.
집집마다 서쪽 산기슭 아래에 자리하고,
석양 속에 오래도록 강경講經 때의 종소리를 듣네.





111

남관 南寬

영양英陽/ 1911-1990

무제 無題

1985년
종이에 먹/ 액자
67x62cm

₩ 1,500,000-3,500,000



112

유산 민경갑 西山 閔庚甲

여흥驪興/ 1933-2018

무제 無題

2004년
종이에 수채/ 액자
45x53.5cm

₩ 1,000,000-2,500,000

113

오당 안동숙 吾堂 安東淑
1922-2016

웅시 雄視
종이에 수묵담채/ 액자
120x56cm

₩ 800,000-1,800,000



114

폴 자쿨레 Paul Jacoulet
1896-1960

방랑하는 노인
종이에 목판인쇄/ 액자
42x3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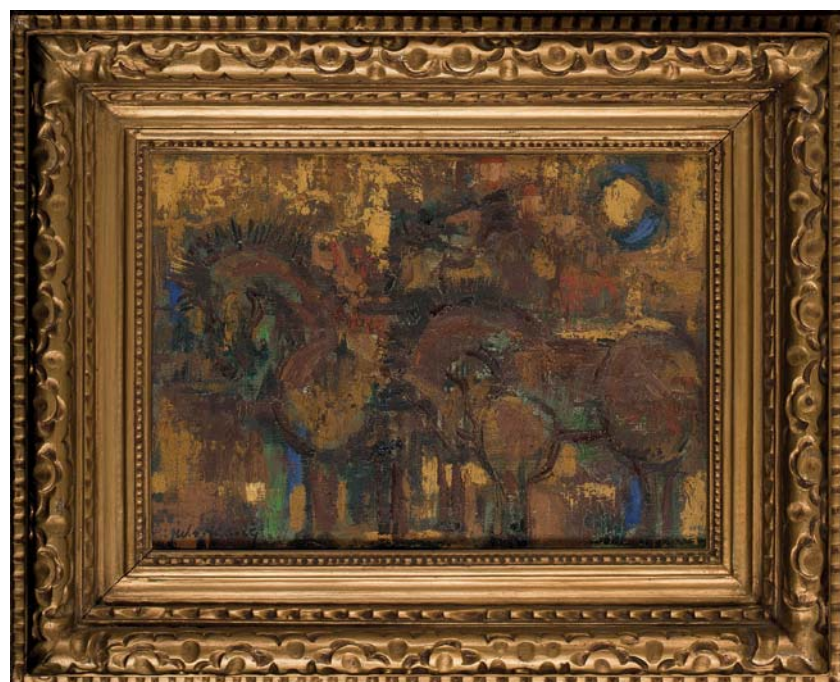
₩ 400,000-1,000,000

115

강환섭 康煥燮
1927-2011

군마 群馬
캔버스에 유채/ 액자
22.5x31.7cm

₩ 400,000-1,000,000



117

최영림 崔榮林
1916-1985

무제 無題 : 도자화
1984년
도자에 안료
36.5x15.6x12.5cm

₩ 1,500,000-3,200,000



앞면



뒷면

116

우현 송영방 牛玄 宋榮邦
은진 恩津 / 1936-2021

백로 白鷺 : 도자화
도자에 안료
31.5x16x14.8cm

₩ 300,000-800,000



앞면



뒷면

118

이알종 李曰鍾
1945-

춘화 春畵 : 도자화
1989년
도자에 안료
18x3x5.7cm

₩ 1,500,000-3,200,000



119

고비 考備

나무에 조각
8x72x13.5cm

₩ 1,000,000-2,000,000

120

등잔대 燈盞臺

나무에 조각
70x18x21cm

₩ 400,000-1,000,000



121

경성남대문조각벼루 京城南大門硯

평양명산 平壤名産

돌에 조각
2x9.3x9.3cm

₩ 300,000-500,000



122

신선로 神仙爐 5점

백동에 음각
15x21x21cm 외

₩ 3,000,000-5,000,000



삼화 三和

해시상회 海市會商

이왕가미술공장 李王家美術工場

조선미술품제작소 朝鮮美術品製作所

해시상회 海市商會

주식회사 칸옥션 제44회 미술품경매

전시

기획·총괄	고은비
자료정리	고은솔
대외협력	김봉수
전시·진행	이정현, 임예흔, 임유지, 임재현

도록

편집·해설	고은비, 고은솔
사진	Lighthouse Studio 010.9050.7056
디자인	디자인솔 02.323.8147

경매	2026년 9월 3일(목) 오후4시 칸옥션 전시장
전시	2026년 8월 24일(월) - 9월 2일(수) 오전10시-오후7시 칸옥션 전시장 * 토·일요일도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인쇄

2026년 8월 24일 발행

발행처·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4길 17, 107호(건국빌딩 건국관)

☎ 02.730.8542 Fax 02.735.2566

e-mail kan@kanauction.kr

www.kanauction.kr

Copyright©2026 KAN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주식회사 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류를 알려 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 이 도록은 회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칸옥션 제45회 미술품경매 작품 위탁안내

경매일정	2026년 11월 27일(금) 예정
작품위탁일정	2026년 10월 30일(금) 까지
문의	02.730.8542 kan@kanauction.kr



주식회사 칸옥션 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칸옥션(이하 '회사' 라고 합니다)의 경매에 관한 절차와 기준, 경매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정의)

- ① 의뢰인 : 아직 위탁자나 응찰자로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며, 회사에 대해 작품 출품, 감정, 판매 등의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② 위탁자 :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진 본인 소유의 작품을 회사의 경매 절차에 따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③ 응찰자 : 회사가 개최하는 경매에 자율적 의사로 참여하여 작품을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④ 낙찰자 : 회사의 경매에 참여 · 응찰하여 해당 작품을 낙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⑤ 시작가 : 회사의 경매사가 작품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⑥ 낙찰가 : 회사의 경매사가 호가를 완료한 후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와 응찰가를 확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 ⑦ 구매가 : 낙찰가에 약관에 정한 구매수수료와 국제인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 ⑧ 내정가 : 회사와 위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최저낙찰가격을 말합니다.
- ⑨ 추정가 : 회사가 미술품 시장의 거래 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해 하한가와 상한가입니다.
- ⑩ 회원 :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회원과 준회원(인터넷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⑪ 이용자 : 회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뢰인, 회사의 경매에 참여하거나 회사가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 ⑫ 기한 : 이 약관에서 말하는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휴일, 공휴일 등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영업일 기준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⑬ 경매사 : 회사를 대표하여 경매의 모든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⑭ 호가 : 회사의 경매사가 경매 시 부르는 작품의 가격과 상승 범위를 말합니다.

제 3조 (회원)

- ① 회사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수행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회비는 어떤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정회원은 회사에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 및 각종 정보 제공, 온라인 경매 이용, 온라인 마켓 구매, 소장 작품의 무료 감정 · 출품 · 판매 무료 상담, 주요 경매 응찰 자격, 회원 기간 동안의 도록 발송 서비스, 특별 · 기획 전시도록 발송 및 초대 자격을 갖습니다.
- ③ 준회원(인터넷회원)은 무료 회원으로, 홈페이지 이용 및 각종 정보 제공, 온라인 경매 이용, 온라인 마켓 구매, 소장 작품의 감정 · 출품 · 판매 자격을 갖습니다.
-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및 작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
 2. 가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3. 경매와 관련된 낙찰대금 등 기타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 회원명의 대여 등 미술시장 및 경매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5. 경매에 관한 위법 행위, 약관 위배 행위, 기타 통상적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 4조 (작품 위탁)

- ① 위탁자는 출품료를 납부하고 작품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우수 위탁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점수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문화재보호법, 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작품인 경우
 2. 작품의 진위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사 경매의 방향과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작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탁자와 회사 사이에 작품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5. 타 회사의 경매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회사는 위탁자에게 경매 출품 및 진행에 관한 경비(작품 사진촬영, 해제, 도록제작, 일반감정비 등 1점당 ₩100,000)를 위탁시 징수할 수 있으며, 우수 위탁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진위 시비로 특별 감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별도의 감정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감정수수료는 작품이 경매에서 유찰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③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1. 위탁자는 위탁 작품에 대하여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 위탁자는 위탁 작품에 대하여 제 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경매 낙찰 및 대금 납부와 동시에 위탁 작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탁을 의뢰한 작품을 회사에서 경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안에 작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의 인수지연으로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인수 기간 경과 후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매 일당 작

품 보관료를 징수합니다.

5. 위탁자는 위탁 작품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 작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작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수령한 대금 전액을 즉시 회사에 환입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책임과 회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 임의로 작품 위탁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사정이 발생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낙찰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의 평균금액을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위 위약벌 액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위탁자는 유찰된 작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15일 경과 후에 발생한 작품의 훼손, 분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한 매 일당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위탁 작품이 낙찰되는 경우 회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정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그 일 수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 5조 (경매 방식)

- ① 회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가 출품작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사전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 ② 경매 진행은 도록에 기재된 작품번호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작품의 경매를 취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작품을 분할 경매하거나, 여러 번호의 작품을 일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 ③ 회사와 위탁자는 경매 개시 전에 경매 작품의 최저낙찰가인 내정가를 협의 · 확정하며, 회사는 내정가를 경매 시작가로 책정합니다.
- ④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여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합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응찰의 참고 자료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정하여 응찰자에게 제공합니다. 추정가는 회사가 미술품 시장의 거래 가격, 희소성, 자료의 가치, 미술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해 하한가와 상한가입니다. 그러므로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위한 가격일 뿐 회사가 보증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추정가는 낙찰가와도 무관하며, 회사는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경매사는 최고 응찰액을 2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리면, 최종적으로 최고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정하여 낙찰자와 최고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 ⑦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호 응찰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작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사가 다음 작품의 경매를 시작한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이전 작품의 경매 결과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응찰자 의무)

- ① 경매에는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과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② 응찰은 현장에서 하는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 ③ 공개응찰은 회사 소정의 경매응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찰팻말(패들)을 교부받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찰팻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 현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따라 응찰팻말을 들어 응찰 의사를 표시합니다.
- ④ 회원은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면응찰 또는 전화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매 상황을 인터넷이나 TV 생중계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화응찰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찰자는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하여 하루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경매 참여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⑤ 출품작에 대해 내정가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 ⑥ 공개응찰자와 서면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서면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의 서면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서면으로 경매응찰신청서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⑦ 낙찰자는 낙찰 작품이 문화재보호법 상 저촉되는 문화재나 유물일 경우, 이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 ⑧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 작품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회사의 권리 및 책임의 한계)

- ① 천재지변 등 회사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된 경매일자 · 시간 ·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경매 전 전시회(프리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작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매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회사의 재량으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작품에 대하여 회사는 홈페이지와 관련인쇄물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매 출품을 위한 촬영한 작품 사진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을 갖습니다.
- ④ 경매 작품의 진위 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칸옥션 경매 응찰신청서

경매명	제 회 경매		
경매일시 및 장소	20 년 월 일 () 오후 시 · 주식회사 칸옥션 전시장		
입찰자격	☐ 개인 ☐ 사업자 (개인, 법인)		
응찰방법	☐ 현장 ☐ 서면 ☐ 전화		
접수일시	월 일 시 분	*24시 기준	담당자: 서명
성명 · 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사업자 모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와 뒤 1자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아이디는 회원가입 시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비상전화번호	비상시 연락받으실 번호입니다.		
낙찰시 배송주소	회원 가입시 주소와 동일하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찰 희망 작품			
작품번호	작가명 / 작품명		응찰 상한가격(원) 가격을 한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 경매 응찰의 우선 순위 · 응찰자 의무 · 응찰 동의			
1. 서면응찰 신청인은 위 경매작품에 대하여 응찰 상한가격까지 응찰하는 것에 동의하며, 모든 절차를 주식회사 칸옥션에 위임합니다. 또한 회사는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응찰을 진행합니다. 2. 동일한 응찰 상한가격의 서면응찰자가 경합할 경우, 회사에 응찰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응찰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3. 현장, 서면,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하여 경합할 경우, 서면>현장>전화 응찰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4. 응찰(현장, 서면, 전화) 후 낙찰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을 철회할 경우 낙찰일로부터 0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회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위 응찰 신청인은 회사가 별도 배부한 약관을 수령한 후 읽고, 응찰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 듣고, 잘 이해하였으며] 모든 절차에 동의한 후 경매 응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식회사 칸옥션은 위 원칙에 따라 모든 경매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찰 신청인		인	· 서명
칸 KAN Auction 0314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 17, 107호(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주식회사 칸옥션 ☎02.730.8542 Fax 02.735.2566 www.kanauction.kr kan@kanauction.kr			



사람과 역사, 문화의 빛, 예술의 향기

미술품경매 칸옥션에서는
한국 미술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